

9  
2020  
VOL. 291

#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100

주년  
한이이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 SAMSUNG

## Galaxy Note20 | 20 Ultra



[www.GalaxyLaunchPack.com](http://www.GalaxyLaunchPack.com)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 축하 UCC 공모전

2020.7.20(월) ~ 9.10(목)



## 공모주제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 축하



## 시상

- 2020년 9월 17일(목) 한인회 홈페이지에 게시
- 대상(1팀/명) : 상장 및 상금 Rp 1000만
  - 최우수상(1팀/명) : 상장 및 상금 Rp 500만
  - 우수상(2팀/명) : 상장 및 상금 Rp 300만
  - 장려상(5팀/명) : 상장 및 상금 Rp 100만
  - 인기상 (1팀/명) : 상장 및 상금 Rp 300만



## 공모자격

한인 이주 100주년을 축하하는 주재국민 및  
한인동포 누구나 (만10세 이상, 개인/팀 무관)



## 공모기간

'20년 7월 20일(월) ~ 9월 10일(목) 17:00



## 공모방법

한인회 홈페이지 통해 참가자 등록 및 영상물 업로드  
영상물 : 1~5분 이내 분량



## 문의

사무국 +62-21-521-2515  
(월~금, 09:00~17:00)  
이메일 innehaninhoe@gmail.com



## 심사

- [공개심사] 좋아요 클릭수(인기상) &  
[내부심사] 심사위원 점수 합산
- 공개심사 : 2020년 9월 11일(금) ~ 15일(화)  
한인회 홈페이지
  - 심사기준 : 주제의 적합성 30%, 작품완성도 30%  
작품내용 40%



## 주의사항

제출된 영상의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등 법률적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 타인과의 저작권 등  
소유권 문제 발생 시에는 응모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 출품작은 한인회 이름의 영상  
컨텐츠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제작 시 유의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sup>th</sup>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표지그림: 인도네시아한인이주 100주년 축하  
강순원 (판화가, 버카시거주)

## contents

2020. 09. 통권 291호

- 07 인도네시아 라이프 No.9 - 넷플릭스 추천영화 <황유경>
- 08 인도네시아한인이주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 10 논설위원칼럼 - 천적들의 운명 <김문환>
- 12 잊히지 않을 2020년의 여름 <이영미>
- 14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단회의 열어
- 15 한인회, 실로암병원과 MOU
- 18 이코노미 인사이트 - 별주부전 <황준규>
- 20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33 - 반란의 시대
- 24 경제뉴스 콕! 짚어보기 <세르나자야>
- 26 뉴스브리핑! <자타르타 경제신문>
- 30 꽃청춘 프로젝트 9탄 <김승욱>
- 32 두 개의 시선 - DO-LA-LA <헬른>
- 36 자카르타 맛집탐방 - Roma Osteria <주윤지>
- 38 나 바 수 <민선희>
- 42 번역의 세계 <하신타 루이사 편>
- 46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신병주>
- 50 아들에게 <김준규>
- 51 A STAR IS BORN <편집국>
- 52 행복에세이 - 언어의 온도 <데위>
- 54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289) <이승민>
- 56 새학기가 시작된 JIS <김경모>
- 58 달달한 가족 바라기 <성유림>
- 61 나만의 학습플래너 <인서연>
- 63 Pancoran 사람들 No.21 <편집국>
- 66 생활정보

## 월간 한인뉴스 9 2020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강순원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NETFLIX



# 집콕족을 위한 넷플릭스 추천영화

김 밝은 위험해!!

## 1 컨테이션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영화 <컨테이션>은 2011년에 개봉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예견한 듯이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 때문에 다시 인기 역주행 중입니다. 고열과 어지럼증, 기침을 동반하는 영화 속 전염병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흡사할 뿐 아니라 야생 박쥐와 접촉한 돼지를 맨손으로 요리한 요리사로부터 전염이 시작된 장면 역시 코로나19를 연상케 합니다. 바이러스를 퇴치에 고군분투하는 인력과 병동이 부족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감염자들,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며 식료품 사재기로 대형마트가 텅텅 비게 되는 장면이 안타까운 현실과 겹쳐 보는 내내 한숨을 자아내는 영화입니다.

## 2 킹덤 “살아남을 자, 누구인가!”

넷플릭스의 최고 인기작! 영화 같은 드라마 <킹덤>입니다. 현재 시즌 2까지 방영한 한국판 좀비 사극으로 <킹덤> 역시 시대 반영을 제대로 했습니다. 영화 속 때로 몰려오는 좀비들이 징글징글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느껴져 좀비 떼들을 시원하게 물리치는 장면에서는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풀 수 있습니다. <킹덤> 시즌 2에는 850여 명의 무술팀, 1,300여 명의 ‘생사역’ 배우, 3천여 명의 보조출연자들이 동원되어 실감 나는 좀비 떼들을 구현하며 압도적인 스펙터클을 선보이며 단숨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물로 올라섰습니다.

## 3 스파이 “역사상 이런 스파이는 없었다!”

킬링타임용으로 봤다가 배꼽 빠지는 코믹 영화 <스파이>입니다. 코믹 영화계의 거장 ‘폴 페이그’ 감독과 그의 사랑스러운 뮤즈로 똥똥하지만 매력적인 ‘멜리사 맥카시’가 최고의 콤비가 되어 완성도 높은 코미디 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멜리사 맥카시’가 연기한 캐릭터 ‘수잔’은 B급 코미디지만 A급 액션과 스케일을 선보이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강제 집콕 당해 답답해진 마음을 사이다 같은 코믹 영화 <스파이>로 한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 4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금지된 세계의 문이 열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외치고 싶으신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최고의 영화 OST의 하나로 꼽히는 ‘히사시시조’의 OST 선율은 미지의 세계로 빨려드는 듯한 느낌을 주며 영화 속으로의 몰입을 극대화합니다. 잘 만든 판타지 애니메이션 한편이 주는 감동 속으로 빠져보세요.



1982.5.30

# 거류민회 회보

제21호 (속광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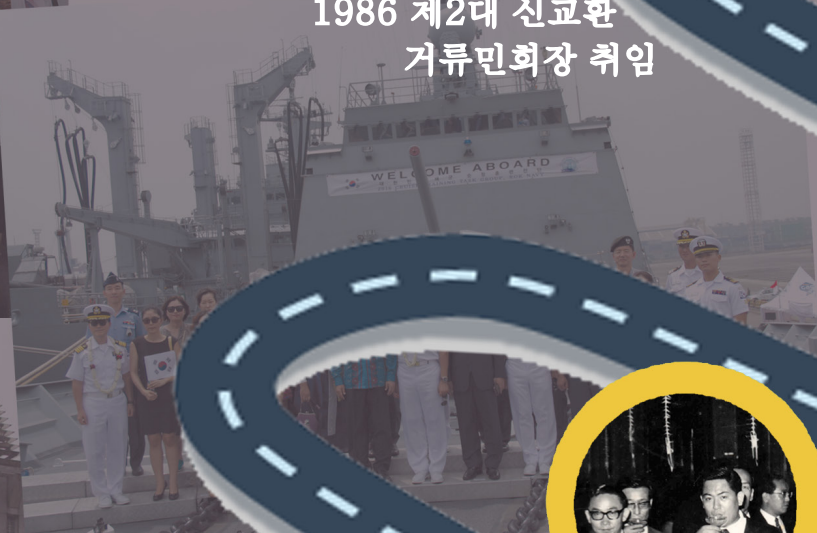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한민국 거류민회

第 21 号  
 在爪哇朝鮮人民會  
 一九八二年十月一日  
 氏名 張南海



1986 제2대 신교환 거류민회장 취임



1920.9.20

독립운동가 장윤원선생 자카르타에 첫발을 내딛다

1945 '재자와조선인민회' 결성

1966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총영사관 개설







1990 제3대 승은호 한인회장 취임



2013 제4대 신기엽  
한인회장 취임



2016 제5대 양영연 한인회장 취임

1973 한.인니 정식국교 수립  
(한인수 약 70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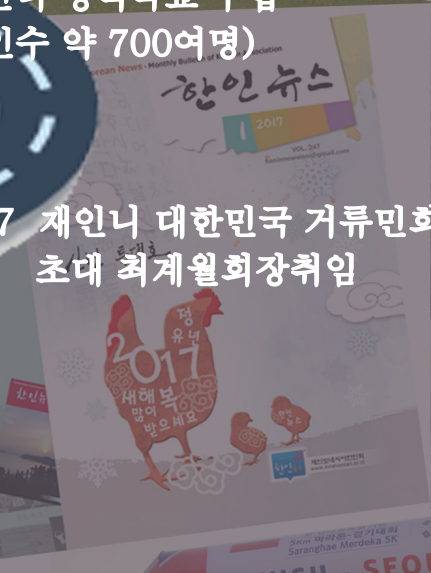
2019 제6대 박재한  
한인회장 취임

1972.7 재인니 대한민국 거류민회 결성  
초대 최계월회장취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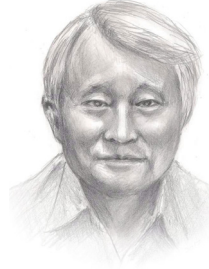
1970

우리 한인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 준 이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100년은 땀과 열정을 쏟은  
도전과 조화의 시간이었습니다.





## 천적들의 운명



김 문 환/논설위원

### 수카르노의 변심

9월 30일 자정이 다 되어 대통령궁을 나선 수카르노 대통령은 다른 행사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데위(Dewi) 여사를 호텔인도네시아에서 동반하여 데위의 자택인 위스마 야소(Wisma Yaso)로 귀가하였다. 수카르노는 새벽 5시경 침실문을 두드리는 수나르요 부관으로부터 모종의 정변이 일어났음을 보고 받았다. 수카르노는 아침 7시에 혁명군측의 수빠르조 준장과 대통령궁에서 만나도록 되어있는 약속대로 황급히 대통령궁으로 향하고 있었다. 벤뎡지역을 지나면서 나수띠온 장군 자택 부근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일단의 경찰병력을 발견한 개인보좌관 망일 경찰 대령이 하차하여 사태과약을 한 후 나수띠온 장군이 탈출하였다는 사실을 수카르노에게 보고하게 된다. 대통령은 크게 당황하면서 차를 반대편으로 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경호차장 사엘란 대령과 망일 대령이 무선으로 교신하더니 일단 대통령을 그로골(Grogol) 지역에 위치한 하리아띠 부인의 자택으로 안내하도록 합의를 본다. 같은 시각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관사를 탈출한 나수띠온 장군이 지척에 있는 제2부수상 레이메나(Leimena)의 자택으로 숨어 들었다는 보고를 접한 수카르노는 나수띠온의 체포를 명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아침 내내 행방이 묘연했던 수카르노는 오전 9시경이 되어서야 할림 지역에 설치된 혁명본부에 불쑥 모습을 보였다. 아이디당수를 비롯한 혁명군 수뇌부는 일단 안도하며 사전 각본대로 수카르노가 즉각 조각을 단행하고 중국의 휴양지로 은퇴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를 학수고대하였으나 상황은 그 반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 베일에 가린 수하르토의 행보

혁명 수뇌부가 결정적 오판을 저지르게 만든 당사자인 수하르토 장군의 거사 당일의 행적도 베일에 싸여 있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수하르토의 동선은, 9월 30일 밤 10시 30분에 가뚝 수브로또병원을 방문한 쿠데타 진영의 라뎡 대령을 30분 정도 만나고 급히 자택으로 돌아갔었다. 이후 수하르토 소장은 어디론가 나갔다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인 후 전투복 복장으로 갈아 입고 새벽 6시경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근무처인 전략사령부(KOSTRAD)에 도착한다. 7시 20분에 혁명군 명의의 '9.30운동' 시작을 알리는 첫 방송이 흘러 나왔다. 이때 자카르타 경비사령관인 우마르(Umar) 소장을 비롯하여 전략사령부 소속 참모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수하르토 장군은 부상을 입고 모처에 은신 중이던 나수띠온 국방장관과 전화통화가 되어, 혁명군이 표방하고 있는 9.30운동을 운똥 중령이 주동한 군사쿠데타로 규정하고 행방이 묘연한 수카르노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군 지휘서열에 따라 공식 중인 야니 육참총장 후임으로 수하르토 장군을 대행에 임명한다는 합의를 보게 된다.



정변 발생 하루도 채 안되어 나수띠온 장군과 수하르토 장군의 연합세력은 소위 NATO(Nasution + Suharto)군이라 별칭되며 혁명군을 ‘일일천하’의 단명으로 몰아 부치게 된다.

## 뿌리깊은 악연

1949년 독립전쟁이 종식되어 군의 역할이 축소되자 정부는 나수띠온 총사령관을 내세워 기존 20만명의 육군 병력을 10만명으로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그 기준을 무능하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에게 우선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독립전쟁 당시 주 전장터였던 중부자와에 상대적으로 많은 실병력이 주둔했던 관계로 감축 대상도 이곳에 집중되고 있었다. 1950년대 내내 족자카르타 주둔 군지휘관을 거쳐 중부자와 지역사령관을 역임한 수하르토 사령관은 비대한 조직을 이끌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국방예산을 민간사업가들과 결탁하여 자급자족으로 메우고 있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화교계 사업가들인 붐 하산, 림수룡의 손을 거쳐 설탕, 면화, 정향, 고철 등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이들 사업을 뒷받침하는 운송업은 2차대전 당시 동남아를 점령했던 일본군의 비밀 요원이었던 추(Chow)가 설립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선박회사 Indonesian Overseas가 담당하였다. 군조직을 이용해 지역기업인으로부터 축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나수띠온 국방장관은 노발대발하여 1959년 수하르토 대령을 중부자와지역사령관(Pangdam Jawa Tengah)에서 축출한다. 해임 당한 수하르토는 명예퇴진을 원했으나 나수띠온은 이를 거부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독립전쟁 당시 중부자와 지역에서 수디르만 총사령관을 정점으로 ‘직속상관’의 인연을 맺어 왔던 가똥 수브로또(Gatot Subroto) 육군참모차장의 중재에 힘입어 가까스로 석방된 후 반동 소재 육군참모대학(SSKAD)으로 좌천된다. 이 시기는 군부내의 진보그룹이 급성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군부 우경화 공작이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으며 육군참모대학을 그 발판으로 삼고 있을 때였다.

수하르토가 지역사령관에서 해임되고 그 후임이 된 프라노또(Pranoto) 대령은 수하르토와 화교계 기업들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에 착수한다. 1960년 육군부패척결위원회 송꼬노 준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프라노또는 고의적으로 조사단과 야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된다. 일제시대 군사조직인 조국자위대(PETA) 임관 동기이며,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프라노또의 기회주의적 처신에 대해 수하르토는 격노하며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일단 변방인 육군참모대학으로 물러난 수하르토는 그곳에서 안정을 되찾으며 ‘학생장(Ketua Senat)’ 후보에 오르자 야니 육참총장의 반대에 부딪힌다. 아울러 야니의 심복인 군수참모 뺀자이판도 수하르토의 과거 밀수 전력을 문제 삼아 이에 맞장구를 친다. 이와 같이 육군의 ‘정군운동’의 타깃이 되어 수세에 내몰리는 과정에 수하르토는 나수띠온, 야니, 뺀자이판, 프라노또 등 군부의 실세들과 악연을 맺게 되

며 후일 이를 모두 양갈음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9.30쿠테타를 계기로 1965년 10월 14일자로 육참총장대행에 임명된 수하르토는 2년 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수띠온은 서서히 현대사의 무대에서 잊혀져 갔으며, 절친이었던 프라노또는 수하르토 군부에 의해 군사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라이벌 격이었던 야니 총장과 뺀자이판 장군도 수하르토가 묵인하였던 혁명군에 의해 거사 당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였다.



수하르토의 은인이자 붐 하산 (좌)의 양부인 가똥 수브로또 장군(우)

## 삶은 계속된다

글: 이영미 (한인100년사 편찬위원)

비가 그쳤다. 도시의 지하철 노선도처럼 복잡하게 이어진 땅 밑 뿌리의 연대가 꿈틀댄다. 빗물에 얼룩진 나뭇가지가 말라갈 때쯤 다시 비가 내릴 것이다. 온몸으로 빗물을 받아내던 가로수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인다. 지금의 내 심리상태를 반영하자면 그 모습이 뒤쳐진 이의 뒷모습처럼 처량해 보인다. “너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걱정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소나기가 내린 뒤의 청량한 풍경으로 바뀐다. 나는 ‘~한다면’ 으로 이어지는 몽상을 즐긴다. 그래서 글쟁이가 되었나 보다.

경영정보학을 전공한 나는 마흔이 넘는 늦은 나이에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런 내가 2년 만에 내 이름이 실린 책 세 권을 동시에 출간하게 되었다. 나에게 동화작가라는 호칭을 붙여준 제4회 생태동화 공모전 수상작 『맹꽁이의 집을 찾아 주세요』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부모님 자서전 써주기 프로젝트인 『나는 아직 꿈을 꾸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가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가 그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6년을 살기 전, 나는 ‘천사들의 도시’ 라는 별호가 붙은 방콕의 변두리에서 10년을 보냈다. 연일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회사 생활에 지친 내게 신랑이 꺼낸 방콕의 주재원 생활은 더없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주재원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육아 지식이 없는 새내기 엄마가 기댈 곳 하나 없는 타지의 땅에서 눈물 콧물을 짜내는 지극히 혼란 시나리오대로 나는 서투르다.

지방으로, 제주도로 출장을 다니며 미국 IT 박람회 참석할 기안서를 작성하던 나는 노트북 대신 아기를 안고 야자수 나무 밑을 걸으며 엄마가 되는 법을 깨우쳤다. 눈앞에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마냥 울어대는 작은 생명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육아 도우미가 있다는 인도네시아로 거처를 옮겨서도 별반 달라진 건 없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지금은 ‘정신없는’ 엄마로 불릴 뿐이다.

코로나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고 싶었던 인도네시아는 첫 번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터진 뒤 6개월 만에 2,000여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인100년사 편찬위원회는 작업을 계속해야 했다.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써야만 했다. 당황스럽게도 나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14개의 지역한인회, 한인동포사회의 형성 과정에 관한 집필을 맡았다. ‘당황’은 ‘황당’과 사촌지간이다. 그만큼 생각지도 못한 분야를 쓰게 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일곱 살 터울의 아이들을 키우는 나와 한인사회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작년 여름에 시작하게 된 <한인뉴스>의 편집팀 일이 전부였다. 생활 정보형 신문과 잡지, TV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20대 후반을 보냈고 태국에서 10년, 인도네시아에서 6년간 치열(?)하게 아이를 키우는 나에게 관심 분야를 골라서 쓰라고 했더라면 단연 ‘생활사’를 고르지 않았을까.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뭐가 되든 매달려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빨리 끝낼수록 유리하다. 다행히 고국에서 4,510km 떨어진 적도의 땅에 뿌리



내린 한인들의 발자취를 좇는 일은 보람된 작업이었다. 수십 번의 자료 조사와 인터뷰로 한 장씩 얹혀나갔다. 인도네시아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다섯 번의 <한인100년사 기획 탐방>에 참여하며 한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만났다. 기획 탐방에서 처음 만나 데면 데면하던 사람들도 오후가 되면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문화탐방 내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가 즐거웠다. <한인100년사 기획탐방>을 기획한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님의 안내로 들른 현지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수십 년 전 먼저 이곳에 들렀던 선인(先人)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인100년사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을 텐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누군가는 해야 했지만, 누구도 선뜻 하지 못했던 일을 결정하고 편찬위원회를 이끌어주신 박재한 편찬위원장님과 김문환 대표집필자님, 두 명의 총괄 위원이신 신성철, 배동선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제 1년여의 항해가 끝나간다. 목적지가 보인다. 여럿이 한배를 탄 만큼 빼거덕거리기도 했지만, “가치 있는 책을 쓰자.”는 궁극적인 목표가 같았기에 정진할 수 있었다. 세대를 아우르거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대단한 철학적 사유나 감동을 이끌어 내지는 못할지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살았거나 살아가는 ‘한인들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 대략 30년의 기간을 한 ‘세대(世代)’로 본다.

동시에 한 생물의 탄생과 소멸까지의 시간을 뜻하기도 한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79년이라니 한인 100년사에는 1.2세대에서 3세대의 이야기가 실린 셈이다. 한인100년사 편찬위원회가 선인들이 살아낸 지난 100년의 이야기에 매달린 것처럼 후세의 누군가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코로나 감염증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살기 팍팍했는데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가 퍼져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지난 일’이 무얼 그리 중요하냐고. 과거를 재조명하는 일에 대한 타당성을 아인슈타인보다 더 정확히 찾은 이는 없기에 그의 명언으로 답변을 대신 하련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며 미래에 희망을 가져라. 중요한 것은 결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존재에 대한 이유를 갖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어머니의 칼끝에서 건져낸 이야기로 굵직한 단편 두 편을 완성했다는 어느 소설가의 고백처럼 나는 조금 더디고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2020년의 여름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건져냈다. 손을 뻗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다는 미다스의 왕을 부러워하며 머릿속을 댄도는 사유가 그대로 글로 변하는 공상을 더 자주 한다. 그러다가도 새벽이 되면 다시 꾸역꾸역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는다. 삶은 그렇게 계속된다. 10년이나 20년 뒤쯤, 나의 가련한 복사뼈가 더 쪼그라들었을 때, 내가 이 붉은 적도의 땅을 떠났을 때 도 나는 2020년의 여름을 기억할 것이다. 아마 당신도 그러리라.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이주 100주년 기념 행사관련 회장단 회의

8월 19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2020년 하반기 한인사회 전반에 대한 상황을 고려, 계획된 여러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한인회는 1920년 장윤원선생이 자타르타 땅에 첫발을 내딛은 9월 20일을 기념하는 한인이주 100주년 기념식과 관련행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축소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에 비대면 진행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들과 돌아봐야 할 현지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련 정보 제공 및 마스크 나누기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했다. 한인회 사무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여전히 호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각종 시설 운영과 출입시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한인회주관의 여러 행사에 전환 및 대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지난 해 7월 26일 출범한 '인도네시아 한인 100사'는 10월말 출간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한인회는 한인이 현지인과 함께 한인 이주 10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으로 대외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인회는 한인 이주 100년을 축하하며 후세에게 자긍심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행사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인회 부회장단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19 상황을 지켜보며 한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에 뜻을 모았다.



루마인다 유치원 김영희원장은 7월 27일, 유치원 인근 빈민촌(Pondok Cabe) 250세대에 2차로 마스크를 4장씩 직접 방문하여 배포했다.



밤퍼 해피센터(대표 최원금)는 7월 30일, 정기적으로 해오던 쌀나누기와 함께 한인회가 2차로 제공한 천 마스크를 자카르타 북구빈민촌 300명의 아동에게 3장씩 900장을 배포했다.

# 한인회, 실로암병원(전지역, 36개원) 과 코로나 검사·입원협약



무증상 환자 많아 한인 동포 감염자 우려 커져  
자진 검사, 입원치료 등 편의 제공



2월경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주재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연일 위태로운 가운데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도네시아한인회는 보다 안전한 의료시스템 보장과 지역한인회와의 공조가 가능하도록 대사관과 함께 8월10일, Lippo그룹 계열의 Siloam 병원과 의료서비스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실로암병원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250만 루피아(20만원)에 받을 수 있다. 신속검사비는 24만9천 루피아(2만3천원) 안팎이다. PCR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상태로 기다리거나, 실로암병원이 마련한 호텔 자가격리 패키지를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실로암병원이 제공한 구급차를 타고 코로나19 지정병원 두 곳에 입원하게 된다. 실로암병원 36개 지점 가운데 자카르타 맘팡(Mampang) 지점과 땅그랑의 끌라빠 두아(Kelapa Dua) 지점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지정병원에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꼬마요란 선수촌 응급병원 등 원치 않은 병원에 강제 입원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했다. 이 때문

에 한인회와 대사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시설이 좋은 실로암병원과 MOU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해왔다. 협약에 따라 실로암 병원은 우선으로 한인 동포 병상을 확보해주고, 불가피한 경우 대체병원 정보제공 및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19 지정병원에 입원하면 정부가 정한 방침을 모두 따른 경우 입원비가 무료다. 다만, 환자별 감염경로·확진 상황·증상여부 등에 따라 전액 무료가 아니고 일부 감면을 받거나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은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정유공장 건설 현장의 근로자 2명과 술라웨시섬 마나도의 한국인 일가족 3명, 27일 실로암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주재원 40대 남성 A씨, 28일 K사 소속 한국인 직원 B씨로 총 7명이다.(8. 28) 칼리만탄 한국인 근로자 2명의 경우 입원치료비로 3천만 루피아(250만원) 안팎을 내라고 해서 병원 측과 무료·감면 여부를 두고 협상 중이다. 마나도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유증상자 한국인 남성 A(44)씨의 경우 무료로 치료받았고, 하루만 입원했던 아내와 아들은 840만 루피아(70만원) 상당을 자비로 냈다.



## 『COVID-19』 관련 한인 협력병원 이용 안내 (2차)

□ 주재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보다 안전한 의료시스템 보장과 지역한인회와의 공조가 가능하도록 8월 10일(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Lippo그룹 계열 Siloam 병원과 의료서비스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Siloam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간의 의료협력이 원활해지고 이를 통해 동포 여러분의 코로나 응급상황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4월 8일부터 메디스트라 병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5월 6일부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료진과는 코로나19 확진 시 의료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 Siloam 병원과의 '주요 협약내용'

(1) [공통] 인도네시아 전역 Siloam 에서 COVID-19 Rapid 또는 PCR 검사 가능

- ☞ COVID-19 검사비 : Rapid Test Rp. 249,000 / Swab Test Rp. 2,500,000
- ☞ Rapid Test의 경우 지역 Siloam별 비용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공통] PCR 검사 후 결과통보 전까지 경미한 증상 또는 무증상인 경우 자택 자가격리, 환자 요청시 별도의 격리시설 이용 가능

- ☞ 자가격리 곤란 시, 환자부담으로 Arya Duta 호텔패키지 이용 가능

(3) [공통] PCR 양성판정 시 병원 제공 앰블런스로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이송

(4) COVID-19 Siloam 거점병원 2곳 지정 → PCR 양성판정 시 입원치료 가능

- ☞ **Siloam Mampang(자카르타) / Siloam Kelapa Dua(땅그랑)**
- ☞ 우선적으로 한인동포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노력, 병상 부족 시 대체병원 정보제공 및 이송서비스 제공
- ☞ 정부의 의료혜택 부합(ITAS, 유증상, on-line 등록, 정부방침 준수 등) 시 입원치료비 무료 또는 감면 혜택

대사관 관계자는 “확진자 치료비와 관련해 유증상자나 정부에서 격리를 강제한 경우 무료로 치료해주고, 무증상자나 사립병원·개인실 등을 이용한 경우 자가부담을 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던 한국인 여행자가 코로나 유사증상을 보여 2주간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이 경우에도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대사관과 협력해 올해 4월 메디스트라 병원과 ‘한인전담 COVID-19 진료’ 협약을 체결했고, 5월부터는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진과 ‘코로나19 원격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Siloam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간의 의료협력이 원활해지고 이를 통해 동포 여러분의 코로나 응급상황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회 사무국은 “한인동포의 COVID 19 감염확산의 불안과 한국을 포함한 각지역으로의 이동시 갖춰야 하는 서류와 지역방역 수칙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 전했다.

한인회는 유증상자 와 밀접 접촉자 및 검사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한인동포의 예약과 절차에 편의를 제공, 8월 10일 현재, 22명이 한인회를 통해 메디스트라 병원에서 검진이 이뤄졌다.

의심 증상이 있는 교민은 한인회 (☎021-521-2515, 카카오톡 ID Korasos)로 문의

## Siloam 병원 COVID-19 검사 및 치료 절차

### COVID-19 검사 희망 시 각 [지역]한인회로 문의 가능

-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21-521-2515, 0812-1960-308 (카톡 ID : Korasos)
- ☑ (땅그랑반튼) 0821-8166-6137 / 보고르 / 반둥 / 수카부미 / 중부자바 / 즈파라 / 동부자바 / 족자카르타 / 발리 / 롬복 / 메단 / 케프리주바탐 / 마카사르술라웨시 / 칼리만탄

### 거주지인접 Siloam 병원 이용 시, 하루 전 사전예약

- ☑ (Siloam 병원예약) 첨부한 36개 병원 리스트 및 각 예약번호(WA) 참조
- ☑ Siloam 병원 사전예약 진행이 어려운 동포는 (지역)한인회에 요청

### PCR 검사 후 자택 자가격리 또는, Arya Duta 호텔 자가격리 패키지 이용

### 확진 시, COVID-19 거점병원으로 이송

- ☑ (Siloam COVID-19 지정병원) Mampang(자카르타) / Kelapa Dua(땅그랑)

### Siloam 병원 'COVID-19 세부 검사 내용'

구분	항목	가격 (IDR)
항체 검사	Rapid Test antibody	249,000
PCR 검사	Swab Test (검사 결과는 보통 1~3일내 확인 가능하며 지역 Siloam별 3~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2,500,000

※ 각 Siloam 별 세부 검사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및 병원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현재 메디스트라 병원에서 실시중인 PCR(Swab) 검사비도 상기와 동일한 수준임

- I. [Jakarta] Mampang / Kebon Jeruk / TB Simatupang / MRCCC Semanggi / Asri [Tangerang] Kelapa Dua / Lippo Village [Jawa barat] Jantung Diagram / Bekasi Sepanjang Jaya / Bekasi Timur / Sentosa / Lippo Cikarang / Bogor / Purwakarta / Putera Bahagia
- II. [Jawa Tengah] Semarang / Syubbanul Wathon [Yogyakarta] Yagyakarta [Jawa Timur] Surabaya / Jember
- III. [Bali] BIMC Nusa Dua / Denpasar / BIMC Kuta [Nusa Tenggara] Mataram / Labuan Bajo / Kupang
- IV. [Sumatera] Dhirga Surya / Silampari / Sriwijaya [Jambi] Jambi [Bangka Belitung] Bangka
- V. [Sulawesi] Buton / Makassar / Manado
- VI. [Kalimantan] Balikpapan / Palangka Raya



# 별주부전(別株不戰)

## - 주식과 부동산 그 별스러운 썬의 전쟁

글: 황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부장)

과거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자리에서 주된 대화의 소재는 시사와 부동산이 있으나 최근에는 주식이 야기가 빠지지 않는 듯 하다. 서울과 5천9백여 킬로미터 떨어진 자카르타에서도 이러한 상황인데 한국은 어떠할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올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정말 뜨겁다. 2000년 초반의 IT버블과 채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까지 다 투여 주식계좌를 만들었던 2006년의 광풍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이제 투자대상은 한국기업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전 세계에서 가치가 제일 높은 미국의 대표기업인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2,200조에 달한다. 지난 3월 1,400포인트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 지수가 이후 가파른 속도로 회복하여 2,400포인트를 넘어섰던 지난 8월 중순의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2,000조가 채 안되는 점을 생각하면 애플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짐작할 수가 있다.

시장의 상승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팽창 때문일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3조달러의 자금을 풀었던 것을 비롯하여 세계 모든 국가에서 유동성 풀기 경쟁이 시작됐다. 5월 말까지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낸 자금이 15조달러(약 1경8200조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다만 정부가 돈의 수도꼭

지를 열었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듯 하다. 물론 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의도한 아름다운 스토리이겠지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결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유례가 없는 돈풀기로 유동성은 넘쳐나고 또한 제로금리에 가까운 기준금리는 개인들에게 은행예금이 아닌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주식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채권으로 운용중인 기관들 또한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에 투자비중을 늘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인 듯하다. 심지어 기관투자자들에게 채권이 위험자산으로 인식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이니 채권시장에서의 많은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등 채권을 대체할 투자처로 옮겨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팬데믹으로 각국의 봉쇄조치는 물론 수요와 공급이 멈춰진 글로벌 실물경제 상황. 특히 미국의 올해 2분기 GDP증가율이 사상 최악인 마이너스 33%를 기록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통계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듯 미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시장 전체에서 목격되는 전대미문의 썬의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자본시장 또는 상아탑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과 예측이 있으나 언제나 그보다 똑똑한 시장(가격)은 이러한 예측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얘기치 못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때가 많았다.

어릴적 필자가 배웠던 경제이론에서 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이 3주체 중 가계는 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으로 은행에 저축을 하고 기업은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가계에 다시 소득(월급)을 주고 정부는 기업과 가계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국가경제활동의 기본 컨셉이었다.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금리보다는 경제성



장과 인플레이션율이 항상 높았기 때문에 언제나 빚을 내어 투자한 레버리지 즉, 기업의 승리의 역사였다) 그러나 IMF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필자가 접한 세상은 그 양상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IMF이후 돈을 못버는 한계기업이 많아지자 자산성장을 위해 은행은 기업대신 가계에게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 가계는 은행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샀고 그 비율은 아파트 가격의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인 천정부지로 올랐고 담보가 되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대출금액도 늘어났다. 이렇게 가계는 어느덧 예금의 주체가 아닌 투자의 주체가 되었다. 반면 기업은 성장에 한계를 느끼자 잉여자금을 생산에 투자하는 대신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영업과 크게 상관이 없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2000년대 이전까지 1.5배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주택 시가총액대비 GDP 비율은 주택담보

대출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2007년까지 2.2배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정부에 민심이 더 크게 동요하는 등 나라가 아파트 가격으로 요란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작년 우리나라 GDP가 약 2,000조이며 지난달 발표된 우리나라 주택 시가총액이 5,000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GDP와 비교하여 2007년 이후 2.2~2.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며 최근 10년간의 국가전체 주택가격 상승은 비슷한 경제규모의 다른 국가들 대비 높은 편이 아닌 점을 감안시 아직까지 버블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다만 주택과 주식시장 모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가격상승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두드러지는 바, 주택매입대기자 또는 지방아파트 소유자가 느낄 소외감을 짐작 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증시 모두 디지털기업과 바이오, 전기차,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시장의 지수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지수는 올라도 그 수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과 기업들로 집중될 것이며 부동산 또한 우리나라처럼 국토면적이 적으며 산지비중이 높고 경제활동이 특정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라면 입지에 의한 희소가치를 지닌 지역의 가격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업들의 쏠림현상을 일컫는 이른 바, “K자”형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올 한해를 점철한 코로나와의 전쟁, 그리고 그 몹쓸 감염병으로 가속화되고있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의 “K자형 켜의 전쟁”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심과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반란의 시대



1952년 10월 17일 사태

지난 호에 이어

리아디는 죽은 후 많은 훈장과 서훈을 받았는데 그중엔 1961년 5월의 빈땅삭띠 훈장과 1961년 7월의 빈땅게릴라훈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령퐁 전투의 다안모곳 소령과 함께 200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국민영웅의 칭호를 받았다.

한편 마누사마와 일단의 말루꾸 정치인들처럼 네덜란드로 망명할 기회도 놓친 수모킬은 뉴빅토리아가 함락되자 남은 병력을 이끌고 스람섬으로 들어가 정부군과 오랜 기간 대치하며 힘겨운 항전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의 위상은 이미 RMS군이 아니라 반란잔당의 수준이었다. 그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난 1963년 12월에 이르러 수모킬은 비로소 체포되었고 부루섬과 스람섬에 연금되어 있다가 1964년 4월 삐에르 윌리엄 블록 등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을 받았다. 그의 모국어는 분

명 말레이어였지만 재판에서 굳이 네덜란드어로만 말하는 고집을 부렸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네덜란드어를 알아 듣지 못하는 일부 법관들과 군인들을 조롱했던 것이다. 그는 결국 사형을 선고 받고 1966년 4월 12일 오비섬에서 처형되었다.

수모킬이 죽자 네덜란드에 있던 RMS 망명정부에서는 마누사마를 RMS의 다음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마누사마는 1992년까지 26년간 RMS 망명정부의 제3대 대통령으로 재직했고 1993년-2010년의 17년간 제4대 대통령을 지낸 프란스 뚜뚜하 뚜네와를 거쳐 지금은 존 와펠레페라는 작가가 제5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다.

네덜란드가 350년간 동인도제도를 식민지배하

면서 여러 경로와 사유로 네덜란드에 이주한 인도네시아계 이민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지만 RMS의 뉴빅토리아가 함락된 다음 해인 1951년엔 KNIL 소속 암본인들을 중심으로 한 말루꾸인들이 대거 네덜란드로 이주했다. 이는 KNIL 부대원들이 원하는 연고지에서 전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역조건 때문이었다.

암본인들은 KNIL 군복을 입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고 네팔인들로 이루어진 영국군의 구르카(Ghurka) 부대만큼이나 암본인으로 이루어진 KNIL 부대는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다. 그러다가 1950년에 들어서 KNIL부대의 해산이 확실시되자 인도네시아 전역에 산재된 KNIL 부대에 배치되어 있던 암본인들은 크게 실망하며 KNIL에 잔류하기를 희망했고 그게 아니라면 철수하는 네덜란드군과 함께 네덜란드에 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모두 거부된다. 당시 KNIL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하는 떨거지 신세로 전락해 버렸고 네덜란드는 그들을 전장으로 데려가는 거라면 몰라도 집으로 데려가기는 싫었으므로 가능한 인도네시아에서 전역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의 선택지는 반란이 진행 중이던 남말루꾸에서 전역해 RMS반란을 통해 말루꾸에 자기들의 공화국을 세우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예전과 같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던 네덜란드 측은 기꺼이 그 요청만을 받아들여 KNIL 부대원들을 암본에 데려다 주려 했지만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는 당연히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1950년 11월 암본이 함락되고 반군잔당이 스타섬으로 들어가자 이제 암본인 KNIL 부대원들은 스타섬에서 전역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심리적 메커니즘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암본인들은 그동안 네덜란드를 주군의 나라, 또는 혈맹처럼 여겼으므로 KNIL 군복을 자랑스러워하며 인도네시아 공화국군을 향해 분연히 충부리를 겨눌 수 있었다. 이제 암본이 함락되자 암본인 KNIL 부대원들은 인도네시아인이 되기보다는 네덜란드

인이 되고자 했고 네덜란드에 갈 수 없다면 곧 소탕될지언정 반군이 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한편 네덜란드 측은 이제 백여년간 자기들을 위해 싸워준 KNIL부대의 암본인 병사들에게 자기들이 세운 ‘전역조건’이란 약속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도덕적 손가락질을 받을 위기에 몰렸다. 결국 네덜란드는 그들을 네덜란드로 데려가 전역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네덜란드에서 전역시킨다는 것이 앞으로 꼭 그곳에서 살게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12,500여 명의 암본인 KNIL 부대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네덜란드에 도착했고 네덜란드 땅을 밟음과 동시에 전역하여 현지에서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

영국군을 따라 영국에 이주한 인디아인들이 빠른 속도로 주류사회에 편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들 암본인들은 언젠가 인도네시아로 추방되어야 할 임시체류자로 분류되어 수용소 같은 임시숙소에서 모여 살아야 했는데 그중 일부는 나찌시절 유대인수용소를 재활용한 곳도 있었다. 1968년까지도 80% 이상의 암본 이주자들은 네덜란드 국적을 얻지 못했고 그것은 네덜란드 주류사회와 현지 암본인 커뮤니티 사이에 넘지 못할 깊은 실망과 배신의 골을 만들고 말았다.



빈땅삭띠 훈장



빈땅게릴라 훈장



이제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지만 뉴빅토리아가 함락된 후 70년이 가까이 되도록 아직도 RMS의 망명정부가 네덜란드에 존재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당시 암본인들의 깊은 절망과 고집을 읽을 수 있고 비록 이름뿐일지언정 그들을 결집시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망명정부가 오늘도 존속하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을 듯 하다.

### 풍운의 장군들

네덜란드는 헤이그 원탁회의를 통해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 인도네시아 합중국을 구축했지만 그들이 완전히 철수하기도 전인 1950년 상반기부터 자체 대통령과 의회까지 지니고 있던 국가 수준의 자치주들이 급속히 붕괴해 갔다. 이는 국민의 합의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현지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의적으로 세워진 괴뢰국가들의 태생적 운명이었고 무너져 내리는 합중국 시스템과 네덜란드 연방구조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던 세력들의 반란들이 족족 실패하면서 그 붕괴속도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그 결과 1950년 8월 마지막 주단위 국가였던 동수마트라주까지 해체되자 1950년 8월 17일 수카르노는 독립선언 5주년을 맞아 이제야말로 인도네시아가 진정한 단일국가로 거듭났음을 선포

했다. 새로운 인도네시아는 새로이 정비된 1950년 수정헌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1949년의 연방헌법과 1950년의 수정헌법은 모두 근본적으로 의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그 최고권력은 총리에게 있었으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축소된 위상은 언제나 수카르노의 불만거리였지만 그룹에도 불구하고 국부로서의 위엄을 한껏 발산할 수 있었다.

의회민주주의의 초창기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새롭게 임명된 의회(DPR) 안에는 수많은 정치정당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각은 재편을 거듭해야만 했다. 인도네시아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이견이 충돌했는데 수카르노가 발족한 인도네시아 민족당(PNI) 주축의 민족주의자들은 세속국가의 형태를 원했고 마슈미당 주축의 이슬람주의자들은 샤리아 율법이 지배하는 이슬람국가를, 1948년 마디운사태 이후 전국적인 사냥까지 당한 끝에 1951년이 되어서야 활동재개가 허락된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은 공산주의 국가를 각각 희구하고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거대 네덜란드 기업들과 화교들이 주도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지역적으로는 수카르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서부자바의 까르토수위르쥬 휘하 다룰이슬람 반군이 1949년 8월 7일 ‘인도네시아 이슬람국가’의 수립을 선포한 후 그들을 지지하는 반군들이 1951년 남부 술라웨시와 1953년 아체에서도 봉기를 일으키며 꽤 오랜 기간 맹위를 떨쳤다. 한편 네덜란드 연방제를 지지하던 이들이 1950년 반동 아프리카(APRA) 반란에 동조했다가 진압당하고 같은 해 마카사르에선 반란이, 말루꾸에선 분리독립이 시도되었음을 앞서 챗터에서 둘러본 바 있다.

군에서도 장교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분열을 야기하고 있었다. 과거 식민지시절 KNIL 부대출신 장교들은 전문적인 군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



수모킬 박사 처형



### 당시 RMS의 국기와 휘장

모 군대를 유지하고자 했고, 절대적 다수를 이루는 일본군정시절 PETA 출신들은 조기퇴역당할 것을 우려하면서 전문성보다는 민족주의적 열정에 방점을 둔 군대를 만들려 했다. 네덜란드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힘을 합쳐 싸웠던 KNIL출신 장교들과 PETA출신 장교들 사이에 균열은 점점 커지더니 이제 서로에게 적개심을 숨기지 않고 활활 불태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1952년 10월 17일 KNIL 출신 군지도자들인 육군사령관 압둘 하리스 나수티온 대령과 전군사령관 따히 보나르 시마뚜땡 소장이 병력을 움직여 대통령과 의회를 상대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PETA 출신분과의 영향을 받아 군문체에 간섭해온 국민대표의회(DPR)에 대해 KNIL 출신, 그중에서도 네덜란드 정규사관학교 출신 나수띠온과 시마뚜땡 등 군수뇌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병력을 동원해 독립궁을 에워싸고 탱크와 야포들의 포신을 독립궁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들은 정권전복보다는 대통령과 정치가들에게 겁을 주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이었지만 독립전쟁 당시 국민적 지지를 얻은 군은 주권회복 후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이제 헌정질서를 우습게 볼 정도로 쿨대가 높아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군부대뿐 아니라 민간 시위대도 동원하는 꼼수를 썼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1952년 말 군은 의회의 정치가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정치권은 군이 정치세력화 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군에 영

향력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1952년 PSI당 주류의 내각은 군을 재편성하면서 6만 명의 비정규군과 3만 명의 경찰병력을 감축하려 했다. 게다가 독립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군은 벌써 네덜란드로부터 협력과 원조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태는 군 안팎의 반발을 불러 왔다. 이것은 군수뇌부 대부분이 KNIL 부대 또는 네덜란드 사관학교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므로 PETA 출신인 밤방 수빠노 대령을 필두로 한 일단의 소장파 장교들이 군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수빠노 대령은 훗날 1965년 9월 30일 육군소장으로서 쿠데타의 주역이 되어 인도네시아 현대사를 피로 얼룩지게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정의를 외치는 혈기왕성한 애국장교였다.



1951년 '꼬따인텐'(Kota Inten)호를 타고 로테르담에 입항하는 암본인들

다음호에 계속



# 경제뉴스 **콕!** 짚어보기

■ 8월의 헤드라인 한줄 정리 ■

## Top

- 미국계 광산기업 [프리포트] 2041년까지 광산 개발 151억달러 투자 계획 발표
- O2O 대표기업 [고젝] 국가 경제 기여도 104조루피아. GDP 1% - UI 조사 보고서
- 은행업 M & A 투자. 2019년 이래 총 70억달러로 2013 ~ 2018 6억달러 대비 10배 급증
- 월수입 500만루피아 미만자 현금지원 (12월까지). 월 60만루피아 대상자 1,380만명
- 재생 에너지 지열 발전. 2030년까지 177건 개발 계획. 총 293억달러 신규 투자 필요
- 인도네시아 국가 안전 등급 [BBB] 유지 - [피치레이팅스] 발표
- 내년도 예산안. 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코로나 대응에 우선 순위 - 조코위
- 7월 국내 자동차 2만5천대 판매. 전년동기 대비 70% 감소. 전월대비 2배 증가
- 코로나 대응 [경제회복 프로그램/ PEN] 관련 예산 집행. 실시3개월간 25% 뿐
- 자카르타8층 이상 고층빌딩 959동 중 255동 방화기준 미달. 개선 안되면 봉쇄 조치
- 자타르타 소화전 총 1,374개중 573개 사용불능. 22일 대검찰청 화재 진압 지연 요인
- 전기료 할인. [산업, 비즈니스, 사회] 부문에 정부보조금 총 3조루피아 투입
- 토요타 [포츨니] 등 6개 차종 연료 펌프 불량으로 리콜 조치
- 5월 파이낸스 업계 불량 채권 4% 초과. 과거 5년이래 최악 - OJK
- 디지털 과세 대상. 대형 IT 10 개사 추가. 페이스북, 틱톡 등
- 코로나 대응 [국가 경제회복 프로그램/ PEN] 예산 695조. 126조 루피아 추가 방침
- 7월 외환보유고 사상 최고 1,351억달러. 9개월분 수입 결제액 보유 (정상 3개월분)
- 정부 내년에도 인프라 정비에 최우선 순위. 예산 금년과 동일 수준 414조루피아
- 2030년까지 전국 철도 총연장 1만킬로 목표. 현재 5,972킬로
- 7월 수출 전월 대비 14.33% 증가. 수입 2.73% 감소. 무역수지 32억달러로 3개월 흑자
- 2/4 분기 경상수지 적자 68억달러로 GDP대비 1.18%. 전년동기 (82억달러) 대비 축소
- 6월 총대외채무 잔고.전년대비 5% 증가 4,085억달러. 공적 1,992억달러 / 민간 2,093억달러
- 영세 사업자 대상 현금 지급 개시. 1,200만명에 각 240만루피아
- 인도네시아 7월 국내 평균원유가 (ICP) 40.64달러/배럴. 전월대비 3.96달러 상승

JakartaPost

**Bisnis Indonesia**  
NAVIGASI BISNIS TERPERCAYA

Kamis, 24 Juli

NATIONAL & POLITICS  
Meikarta Peduli Bantu  
Siloam Bangun  
6 RS Darurat Baru

12

MARKETS & CORPORATE  
Minat IPO Masih  
Tinggi di Tengah  
Pandemi

LIFESTYLE & SPORTS  
Ruang Kekayaan  
US\$ 52,7 Miliar  
Steve Ballmer Terkaya

19

**INVESTOR DAILY**  
INDONESIA

KAMIS 9 APRIL 2020

KO  
AMA

## 산업

- [아스트라인터내셔널그룹] 상반기 순익 16% 증가. 신흥파미나 은행 매각 기여
- 700 여 상장기업 중, 상반기 결산 공표 기업 384기업 중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 25% 뿐
- 중부자와 [바다] 신공업단지. 10년 임차료 면제 방침. 4,000ha 연내 가동
- 자카르타 통행료 자동 징수시스템(ERP) 도입. 코로나로 내년 이후로 연기
- 국내 최초 헬기 전용 공항 23일 오픈 (2.7 ha) . 수카르노하타 공항 인근
- 국영석유[신흥파미나] 상반기 7.68억불 적자. 2014년 조코위 정권 발족 후 처음
- 팜유 수출 물량 상반기 11.7% 감소, 금액 기준 6.4% 증가한 100억달러 기록
- 할랄 인증 취득비용. 소규모 영세 기업 무료. 년 매출 10억루피아 미만 - 종교장관
-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 의료 차터 항공 운항개시. 외국인 환자 급증 따른 수요 증가

## 정치 · 사회

- [그린드라당] 신흥파미나 총재 2025년까지 재신임. 차기 대통령 출마 미정
- 제 2차 13개 정부기관통폐합 곧 실시. 7월 20일 1차 18개 기관 통폐합 종료
- 투쟁민주당 & 그린드라당. 12월9일 자치단체장 선거 24지역 후보 통합 합의
- PCR검사 비용 과다 100만 ~ 500만루피아. 정부 100만 이하로 인하 착수
- 원격 교육 지원용 데이터 무료 제공. 교사, 학생 1인당 30-50 GB. 예산 9조루피아

Recruitment Service



OS SELNAJAYA

세르나자야

Korea Desk

hwangyh@os-selnajaya.com

MPAS  
HATI SUBANI BAKYAT

The Jakarta Post  
MONDAY JANUARY 15, 2018 TWENTY PAGES VOL. 35 NO. 213 SINGLE COPY PRICE RP7,500

Menuju Hari Esok yar

HUT KE-48 MEDIA INDONESIA

adikan Pers ya  
Berarti Sepanj



## 조코위 “코로나 경제 상황 회복, 컴퓨터 재부팅과 같아”

국가예산안 제출 시정연설…내년 경제성장률 4.5%~5.5%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을 ‘컴퓨터 고장’에 비유하며 재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 2천747조5천억 루피아(222조원) 규모의 2021년도 국가 예산안(APBN)을 제출하며 시정연설을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각국의 경제 상황은 컴퓨터 고장과 유사하다”며 “짧은 셧다운과 재시작, 재부팅(restart and reboot)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큰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GDP)은 0%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5%~5.5%로 설정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만 4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2.97%, 2분기는 -5.32%로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1999년 1분기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0.3% 증액하되, 경기회복을 위한 지출을 늘려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5.5%로 책정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집행 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제약·의료산업 발전과 병원·보건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보르네오섬 중부 칼리만탄 농경지개발사업과 인적 자원 개발사업도 강조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가 중 하나로서 팜오일 원유(CPO) 100%로 만든 바이오디젤 개발에 박차를 가해 원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팜유 국내 소비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국채 82조 루피아 매입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중앙은행(BI)이 지난 6일 82조 1,000억 루피아 상당의 국채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7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비용의 확대에 따라 중앙은행에 의한 제로쿠폰채(이자가 없는 대신 할인해서 파는 채권) 매수 등의 재정 부담에 대해 합의하고 있었다.

중앙은행에 의한 이번 국채 매입은 재정 부담의 분담에 대해 합의한 틀의 제1탄이다. 중앙은행은 만기가 5년, 6년, 7년, 8년인 국채를 각각 20조 5,200억 루피아씩 구입했다.

중앙은행은 7월의 합의로, 재무부가 발행하는 574조 5,900억 루피아의 제로쿠폰채를 인수할 것을 결정했다. 이 중 397조 5,600억 루피아는 의료 및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지원에 충당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7~12월)에 990조 루피아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가경제회복(PEN-Pemulihan Ekonomi Nasional)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695조 2,0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재정적자의 대국내총생산(GDP) 비율은 올해 6.3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 자카르타 2분기 투자실현액 30조 루피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특별주 투자원스톱통합서비스관리(DPM·PTSP)에 따르면 2분기(4~6월) 투자실현액은 외국기업의 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8억 달러, 국내 기업의 투자(DDI)가 10% 증가한 17조 9,000억 루피아였다. 루피아 통화 기반의 FDI와 DDI의 합계액은 30조 1,000억 루피아로 지역별 투자실현액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DPM·PTSP 베니 국장은 “FDI에서 가장 투자실현액이 컸던 분야는 3억 800만 달러의 주택 공단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라고 말하며 “DDI는 운수·창고·통신으로 6조 6,000억 루

피아(전체 37%)를 기록하며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남부 자카르타가 FDI와 DDI가 총 13조 5,000억 루피아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라고 설명했다.

베니 국장은 “2분기에는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FDI가 감소했다. DDI가 증가한 것은 아니스 주지사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말했다.

상반기(1~6월) 이 지역의 FDI와 DDI의 실현 금액은 총 50조 2,000억 루피아로 국내 전체 투자실현액 402조 6,000억 루피아의 12%를 차지했다.



## 인도네시아 제화협회, 회원사 18%가 생산 중단

인도네시아 제화산업협회(Aprisindo)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원사의 1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회에 가입한 약 120개사의 직원 중 최소 수만 명이 실업이나 해고 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prisindo 관계자는 “국내 공장의 가동률은 32%까지 떨어졌다”며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공장도 가동일수를 주 3일로 줄이고 있어 생산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미국 나이키 운동화 등을 생산하는 대만계 빅토리 쟁루 인도네시아(PT Victory Chingluh Indonesia)가 4,985명을 해고하는 등 코로나19에 의한 국제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 축소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

## 자카르타 코로나19 환자 증가...의사들 위기감 느껴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의료 종사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이 타이트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3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수도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하는 병상의 이용률은 7월 26일 시점에서 66.9%에 달했다.

전염병 지정 의료기관의 한 의사는 “7월 초부터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50개 병상 중 90%가 차 있는 상태”라며 “지역 병원 등에서 환자 수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 붕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염 대책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당국에 촉구했다.

다른 병원의 간호사는 늘어나는 환자수를 우려하고 있다. 7월 30일 시점에서 이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 6명이 공기 감염 격리실로 이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카르타에서는 67개의 병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아시안게임 선수촌 병원으로 개장한 위스마 아뜰렛(RSD Wisma Atlet) 병원이 감염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 중 위스마 아뜰렛 이외 병원의 격리 병상 수는 총 4,556개, 중환자실(ICU)은 659개다.

예를 들어 중증환자를 수용하는 술리안띠 사로소(Sulianti Saroso) 감염증 병원에는 현재 38명이 입원해 있으며, ICU는 이미 만상이 된 상태다.

한편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는 8월 27일, 코로나19의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전환 기간을 9월 10일까지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인도네시아 장관 “신수도 기공식 2023년까지 연기될 수도”

코로나19 사태로 연기...조코위 퇴임 전 1단계 이주 어려워

인도네시아가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첫 삽도 못 뜨고 내후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담당 장관이 밝혔다.

20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건설을 위해 올해 3월 관련법 발의, 7월 착공, 2024년 1단계 이주를 목표를 세웠지만 3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법안 발의도 못 하고 모든 게 미뤄진 상태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사태의 긴 터널 끝 불빛을 볼 때까지 신수도 정부청사 건립이 보류될 것” 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전날 인터뷰에서 말했다.

국가개발기획부는 신수도 건설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수하르소 장관은 “우리는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제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며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2억7천만명 인구에 배포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기에 신수도 기공식은 2022년 또는 2023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제약사인 바이오 파르마는 중국 시노백과 손잡고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이달 11일부터 서부 자바 반등에서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에 시노백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메라 뿌띠’ 도 내년 중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작년 8월 26일 신수도를 동칼리만탄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고, 10월 20일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수도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에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까지 모두 새로 짓고,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인 2024년에 1단계 이주를 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암초에 걸려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OCBC은행 이코노미스트 웰리언 위란토는 “통상적으로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대응이 더 시급해 보인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발전연구소(INDEF)의 에니스리 하르타티는 “경기침체가 내년 중반까지 정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며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신수도 이전을 논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록 코로나 사태로 신수도 건설 사업이 늦어지지만, 그 기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며 정부 이전계획·로드맵·재원 조달방안 마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김승욱 코치와 함께하는 꽃청춘 프로젝트 9탄



## 유튜브에서도 잘 안알려주는 “평생 써먹는 스쿼트 꿀팁”

스쿼트, 근력운동 하면 누구나 아는 이 운동!!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스쿼트를 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무릎이 발 너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고개를 드세요” 코치들이 자주 하는 이런 말 몇 가지는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쿼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따라 했다가는 점점 아파오는 무릎, 뻣근해지는 허리, 바늘로 콧 쭈시는 듯한 엉덩관절(고관절) 통증 등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이번 시간에는 하체 ‘근력운동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쿼트를 제대로 파헤쳐 보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가장 알짜배기 정보이다. 칼럼을 읽은 후,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쿼트 동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1. 스쿼트 시작 전 척추의 정렬



(등을 과하게 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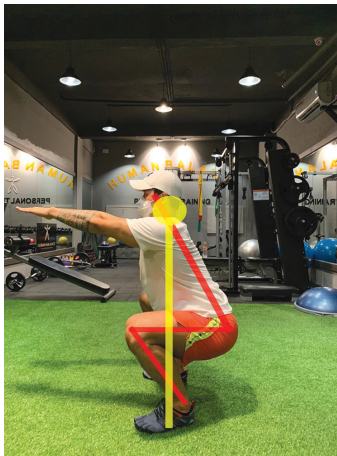
(올바른 척추 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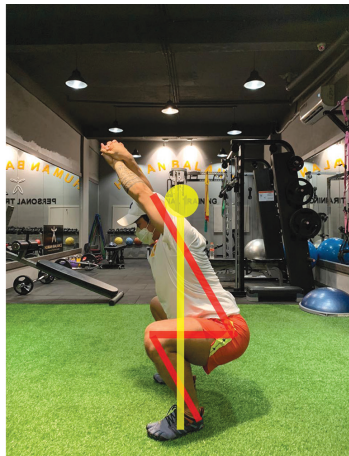
(등을 과하게 굽힌 경우)

스쿼트 시작 전 척추의 정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자! 스쿼트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이고 주로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쓰이는데 척추의 정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의 중심이 계속 변해 불안정한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 무거운 무게를 더 했다고 상상해보자. 끔찍하다. 잘못된 동작에 무게까지 추가해 운동을 하면 어떤 특정한 부위에 더 큰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다. 손바닥을 편 손을 사진처럼 가슴라인과 골반라인에 정렬한다. 왼쪽 사진은 등을 과하게 펴서 척추 전만(척추가 앞으로 볼록하게 굽은 상태)이 된다. 앞에서 보았을 때 양쪽 손바닥이 모두 보인다. 가운데 사진이 척추의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세이다. 오른쪽 사진은 등을 새우처럼 과하게 구부려서 구부정한 요추 후만 자세가 된다. 이런 자세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하다. 디스크가 생기거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좌식생활이 굳어진 교민분들에게 흔히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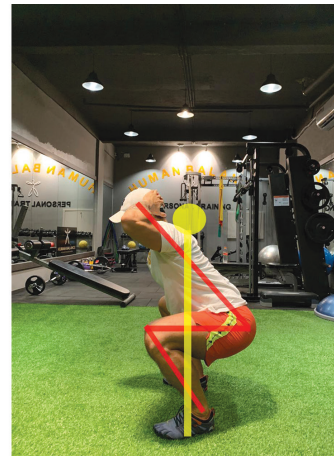
## 2. 스쿼트 종류별 각 관절의 각도 차이



(프론트 스쿼트)



(오버헤드 스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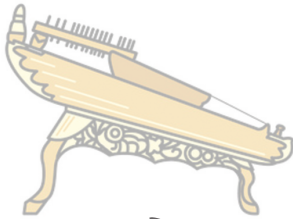
(백 스쿼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의 중심에 따라서 각 관절의 각도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몸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느끼며 스쿼트를 연습해 보자. 이 연습들을 잘 해놓으면 바벨을 이용한 스쿼트(바벨 스쿼트)를 배울 때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각각의 스쿼트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프론트 스쿼트는 몸이 조금 세워진 반면에 백 스쿼트는 몸이 앞으로 더 기울게 된다. 백 스쿼트에 비해 프론트 스쿼트는 엉덩이가 뒤로 덜 빠지고 무릎이 더 구부러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론트 스쿼트 자세에서 종아리와 뒤쪽 허벅지가 더 맞닿아 있다.

프론트 스쿼트가 백 스쿼트보다 무릎이 더 구부러져있다는 것은 앞쪽 허벅지 근육이 더 늘어났다는 뜻이다. 반면에 엉덩이 근육의 참여도가 더 큰 백 스쿼트는 엉덩이관절이 더 당겨지게 된다. 실제로 스쿼트를 하다 보면 개인마다 뼈 길이의 차이와 형태에 따라 스쿼트의 자세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 “스쿼트를 할 때 절대 무릎이 발끝을 넘으면 안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트레이너와는 거리를 두길 바란다. 다시 정리해보면 척추가 올바르게 정렬된 상태에서 코어근육에 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몸의 중심선을 맞추며 앉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앉을 때 척추의 정렬이 무너지고 코어의 힘이 풀린다면 무리해서 앉을 필요가 없다. 스트레칭과 스쿼트 연습을 꾸준히 하며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자세를 낮추는 연습을 하면 된다. 지금쯤이면 스쿼트라는 운동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신.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배운 K-learning(김코치 러닝)을 토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연습해보길 바란다. 당신 옆에는 든직한 김코치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들 힘드시지만 늘 힘내시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건강을 지키세요.”





헬튼(Heylen)/ HOTEL GRAN MELIA

**인** 도네시아 계시면서 여러 전통춤을 보셨을 텐데요. 45분동안 눈을 한번도 깜빡이지 않고 추는 춤을 본 적이 있나요? 이번 9월호에서는 중부자바(Purworejo-Banjarnegara) 지역에 아직 남아 있는 오랜 문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춤의 이름이 재밌어요. DO-LA-LA인데(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따 온 ‘도’와 ‘라’ 예요), 자바 사람들은 아무래도 무겁게 발음하는 억양이 있다보니 돌락락(Ndo-la-lak)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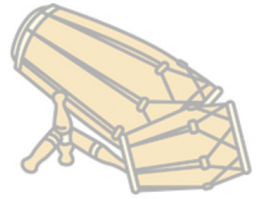
이 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면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네덜란드 군대의 기숙사를 자주 엿보던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 셋이 있었어요. 네덜란드 군인들이 밤에 군복을 그대로 입은 채 맥주를 마시면서 춤을 추면,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어요. 그러다가 군인들이 입은 의상을 얼추 비슷하게 입고선 춤동작을 따라해보기 시작했지요. 네덜란드 가사로 된 노래는 자바어로 바꾸고요. 노래는 Do-la-la (‘도’와 ‘라’)음을 넣어서 반복하고 내용은 회교도 가르침에 대한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제목을 Ndo-La-Lak이라고 했지요. 노래 가사나 배경음악의 악기, 춤, 의상은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었어요.

아마(Ama, 37세)는 Do-la-la예술단의 ‘일당백’ 팀원이에요. 14살에서 17살인 여자아이들 12명이 무희로 춤을 추는데 이 아이들의 코디역할도 하면서 메이크업도 해주고, 빠왕(pawang, 신접을 다루는 사람)역할도 하고, 노래꾼이 없을 때는 대신 노래도 불러요. 한 무희가 춤을 출 때 접신을 하는데요. 이 때 춤꾼들의 몸에 들어가는 신들은 악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조상신이에요. 조상신이 저승에 있다가 무희가 이 춤을 추면 이승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악귀나 귀신과 접신하면 무희들이 춤동작을 컨트롤 하기가 어려운데 조상신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우아해요.

빠왕이 무희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블랙커피 한 잔, 설탕 커피 한 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차(teh). 설탕을 넣은 차, 바나나, 코코넛 꽃(kembang boreh),





황금목 이파리, 시리(sirih) 잎담배 가루, 안식향(향기가 강하고 사악한 기운을 쫓아 낸다는 나무), 영코코넛(과육과 야자수를 함께 통째로 냄), 정향, 시골닭이 낳은 날계란, 코코넛우유에 커피와 설탕을 걸쭉하게 섞은 물을 쟁반에 함께 내어 무대로 올려요. 하나라도 비는 게 있으면 빠왕이 무희들에게 귀속말로 속삭이면서 양해를 구해서 조상신이 노여워하지 않게 하지요. 날계란 같은 건 무대로 올리다가 깨지기도 하니깐요. 노래가 시작되면 빠왕은 조상신이 무희들의 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을 외면서 무대에 꽃을 뿌려요. 기도문을 읊은 후에 무희는 홍초(칸나, tasbih)를 목에 걸고 검은 안경을 써요. 홍초를 이렇게 목에 걸면 악귀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검은 안경은 왜 쓸까요? 수 백명이 보는 공연인데 무희가 눈을 한번도 안 깜빡이고 인조 속눈썹을 달고 있으면 어떨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서 빠왕이 꼭 주인공 무희에게 검은 안경을 씌우는 거지요.

빠왕과 무희들은요 평소에 금식을 자주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생일날은 꼭 금식을 하는데, 그래야 Do-la-la 공연에서 접신할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무희가 월경을 하는 달에는 공연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춤을 출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통 찾아요. Do-la-la 공연은 빠왕과 무희들의 텔레파시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져요. 빠왕은 무희들의 움직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접신을 한 무희들의 손가락 움직임과 감정까지도 세심히 살필 수 있어야 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에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무대에 올라가 무희들과 춤을 추고 싶은 관객이 있는데 조상신이 거슬러 하면요 무희들이 어떤 움직임을 하면서 빠왕이 이 관객을 무대에서 내려보내게끔 해요. 빠왕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상신이 화가 나서 뿔가를 집어 던지거나 먹은 음식을 토해내기도 해요. 조상신이 무대가 신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또 한가지 독

특한 점은 조상신이 공연을 하는 동안 관객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박소(bakso)같은 음식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희들은 공연 의뢰자가 원하는 의상을 입어요. 보통은 결혼식이 있거나, 추수를 잘 해서 축하 공연이 필요하거나, 마을 이장부터 주지사까지 지도자로 지위가 올라간 사람이 있을 때, 지역에 새로운 군대 사령관이나 경찰서장이 부임했을 때 이런 공연을 해요.

네덜란드 군인들이 왔던 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 그런지 보통의 무희들과는 달리 머리에 특별한 장식을 하지는 않고, 네덜란드 군인들이 예전에 썼던 모자와 비슷한 걸 써요. 머리는 옛날 삼푸 광고 마냥 길게 늘어 뜨리고요. 얼굴 화장도 다른 자바 또는 발리춤을 추는 무희들처럼 화려하지 않고 평범해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스타킹과 양말을 신어요. 인도네시아 전통 춤을 보면 대개는 무희의 가슴 위가 드러나는 의상이 많은데, 이 춤은 그렇지 않아요. 네덜란드 군인들처럼 옷을 입었으니까요.

보통 한 예술단에는 핵심 멤버가 3명 있어요. 조상신을 접하는 사람, 빠왕, 그리고 북을 치는 사람이예요. 인상적인 공연을 펼치는 데 이 세 사람의 조화가 필수적이죠. 북을 치는 사람은 음악의 리듬과 빠르기를 결정하고, 소리를 내거나 해서 신접을 한 무희로부터 조상신이 빠져나오게 해요.

반자르느가라(Banjarnegara)에 사는 데위(Dewi, 16세)라는 어린 무희가 있어요. 데위는 데위 아룸(Dewi Arum)이라는 예술단에 14살부터 합류했는데, 내년엔 고등학교를 마치면 결혼을 하고 공연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남편이 무대 공연을 반대해서요. 데위는 공연을 취미로서도 아주 좋아했지만, 용돈을 벌어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 자기가 번 돈의 절반을 갖다 드릴 수가 있어서 좋았다고 해요.

데위는 소녀시대, 블랙핑크, BTS, 지창욱의 팬이에요. 한국을 아주 좋아해서 저에게 한국 핸드크림이나 립밤, 썬크림, 파운데이션 이런 한국 화장품을 보내줄 수 있겠냐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영락없이 한류에 빠진 중학생 소녀 같아요.

데위 말로는 접신을 하고 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몸이 아프대요. 잠깐 쉬고 나면 다시 몸이 원상태로 돌아오고 쭈시는 느낌도 사라지고요. 매일 균형잡힌 몸을 위해서 물과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챙겨 먹어야 해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일주일에 2번은 연습을 했는데 지금은 한 번밖에 하지 못해요. 한 번 연습하는 데 3-4시간은 들어요. 도둑(ndodok)이라는 춤동작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기도하고 정말 잘하지 않으면 부드러워 보이지 않아서 어렵다고 해요.



데위는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생일날 하는 금식을 정말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금식을 하면 무대 공연 때 조상신이 자기를 잘 받아줄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보통 Ndo-la-lak 공연을 하는 무희를 미스테리한 춤꾼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데위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전통춤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거든요. 데위가 좋아하는 공연음악이 있는데 (jarum-jarum, ukir-ukir, timun pahit, jalan-jalan, lepas meriam, pakai cincin) 이런 것들이예요.

몇 개월간 계속되는 Stay at Home때문에 심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유튜브에서 데위가 활동했던 Dewi Arum 이라는 예술단의 공연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번역: 민선희

#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아프간 난민촌에 구호품 전달



## 서부 자카르타 240여명 난민촌에 마스크 · 라면 · 아이스크림 선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동남아남부협의회는 난민촌을 방문, 마스크 1천장과 빵 등 구호품과 지원금 2천만 루피아(162만원)를 전달했다.

삼양 불닭볶음면의 인도네시아 유통업체인 헤온즈 코퍼레이션 이정호 대표는 라면 4천개를 내놨다.

냉장·냉동 박스를 장착한 오토바이 배달업체 퀵스 임종순 대표는 한국 아이스크림 250개를, 국립이슬람대학교 안전군 교수도 지원금을 각각 보냈다. 이날 전달된 구호품 가운데 한국 아이스크림 가장 인기를 끌었다. 난민촌 밖으로 나가기 어렵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정도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송광중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은 “난민촌 생활이 안그래도 힘든데 코로나19 사태로 더 어려울 것 같다”며 “힘들어도 잘 버티길 바라며, 사랑의 나눔 행사를 통해 한국인의 정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유입된 아프간 난민은 1만2천명에 이른다. 8천명은 유엔난민기구가 인도네시아 10여곳에 설치한 캠프에 수용됐고, 3천500명은 인

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보고르 뽀작 지역에, 나머지는 자카르타 안팎에 몇백명씩 모여 살고 있다.

자카르타 서부 옛 지역사령부 건물에 마련된 칼리테레스 난민촌에는 어린이 40여명을 포함해 총 230여명이 전기도, 수도도 없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 난민들은 아프간을 탈출하면서 가져온 돈으로 근근이 버티고, 가끔 한국인 선교사 권용준씨 부부를 포함해 종교인들이 가져다준 생필품으로 연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난민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기에 이들은 유엔의 소개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제3국으로 이주할 때까지 5년, 10년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칼리테레스 난민촌 대표 하산 라마잔(42)은 “인도네시아 정부도, 유엔도 기다리라고만 할 뿐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아직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늘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공:연합뉴스,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 Roma Osteria (SCBD)



글: 주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지난 달 중국 여행(?)은 잘 다녀오셨나요?^^ 이번 달은 두둥두둥~부 온조르노(Buongiorno)~느낌 오시나요? 네~맞습니다. 이탈리아를 갈 거예요!

자카르타에서 나름(?) 세계여행하기 특집, 제2편 이탈리아! 이탈리아 하면 피자, 파스타 아니겠어요? 이번 호에서는 뻔한 피자·파스타가 아닌 Fun한 피자·파스타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카르타에 많은 이탈리아 식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탈리아 분위기 가 뽐뽐하는 식당 <Roma Osteria>를 소개합니다 짜잔~ 남부 자카르타 SCBD에 올해 연 초에 새로 생긴 식당으로 오피스 빌딩 숲 속 사이에 숨겨진 맛집이에요. 길을 걸어가거나 차 타고 지나가면서 절대 Never 보이지 않는 식당입니다. 궁금하시죠? 식당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 음식점이에요. Osteria가 음식점, 식당이란 뜻이거든요. Union, Cork&Screw 등 현지 유명 식당 프랜차이즈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Union Group이 새로 런칭한 이탈리아 식당입니다. 우선 이 식당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프로토콜에 따라 QR코드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이름, 이메일)를 입력해야 해요.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높은 천장 인테리어와 식당 중앙에 설치된 화덕이 눈길을 사로 잡습니다. Union Group의 5명 오너 중에 이탈리아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확실히 이탈리아스럽습니다. 정말 이탈~리아 같아요:) 분위기만 리얼 이탈리아스러운게 아니에요. 음식도 리얼 이탈리아스럽습니다. 자~이제 저의 추천메뉴 소개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번째로는 Bocconcini Parma Ham (185,000루피아)입니다. 에피타이저로 항상 셀러드만 주문하기 지겨우실 때, 상큼 짭조름한 모차렐라 치즈 요리 어떠세요? Bocconcini는 모차렐라 치즈 종류 중에 하나로, 이 음식은 Bocconcini 치즈를 Parma Ham, 체리 토마토, 바질, 올리브오일과 곁들여 먹는 음식으로, 보통 자카르타 내 이탈리아 식당에서 찾아보기 힘든 메뉴입니다. 이 식당은 Bocconcini 외에도 Burrata, Cow Milk Ricotta 등 다양한 모차렐라 치즈 메뉴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최애 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Pizza Rosse Burrata(150,000루피아)입니다. 이탈리아 식당에 와서 피자가 빠지면 섭섭하죠? 이 식당의 또 다른 특징은 피자 종류를 화이트 소스(Pizza Bianche)와 레드 소스(Pizza Rosse) 두 종류로 나누어 놓았다는 것인데요. 다른 식당에서 찾아보기 힘든 Burrata 피자를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소스 베이스에 Burrata 치즈만 딱하니 토핑으로 올라간 아주 심플하고 리얼 이탈리아스러운 피자입니다. 많은 토핑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쫄깃쫄깃한 피자 도우와 Burrata 치즈 덕분에 정말 맛있습니니다. 참고로 피자 도우가 얇고 크기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딱 6조각 나옵니다.

드디어 이곳의 찐추천메뉴 Gnocchetti Sardi(150,000루피아)를 소개합니다. 짹짹!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지금도 또 먹고 싶어요ㅠㅠ 도대체 무슨 음식이냐고요? 파스타 종류 중의 하나인 뇨키(Gnocchi) 음식입니다. 보통 파스타하면 느끼해서 많이 못 먹잖아요? 이 음식은 Wow~배가 불러도 계속 당기는 맛입니다. 아침 점심 모두를 이탈리아 음식으로 먹은 한국인도 저녁으로 또 이탈리아 음식을 먹게 해 주는 요리예요. 쫄깃쫄깃한 뇨키(감자, 치즈, 밀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파스타 일종)를 토마토소스와 돼지고기와 함께 볶았는데 어머나~매콤해요@.@ 그렇다고 생수를 찾을 정도로 매운 맛은 아닌 매콤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가리지 않고 한국인 입맛에 정말 잘떡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 메뉴인 Zeppole(75,000루피아)입니다. Zeppole는 이탈리아 나폴리식 디저트로, 원형 반죽을 오븐에 굽거나 기름에 튀긴 후, 누텔라와 휘핑크림에 찍어먹는 음식입니다.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이 메뉴를 주문할 정도로 이 식당의 대표 메뉴입니다. 우선 주문하자마자 방금 반죽을 만들어서 튀긴 즉석 도너츠의 맛으로, 밀가루 반죽인데 아이스크림 처럼 입 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오마이갓,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레시피와 요리 테크닉이 정말 궁금해지는 맛입니다.

최근 한국도 코로나19가 다시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보아, 올해 안으로 코로나19가 종식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ㅠㅠ당분간 여행은 꿈꿀 수 없겠죠틡ㅠ 대신 자카르타에서 가끔씩 세계여행 음식탐방하는 건 어떨까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 <식당 정보 : Roma Osteria>

음식 종류 : 이탈리아 음식  
 가격대 : Rp 6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 12:00~22:00  
 주소 : Sequis Tower Ground Floor,  
 Jl. Jend.Sudirman No.Kav.71,  
 Senayan, Jakarta

※ Zomato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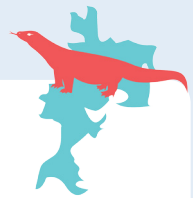
#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주제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주제중심으로 말한다는 건 수동문의 형태로 쓴다는 건데 이번호에서 일상속 대화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보기로 해요. 필요한 걸 해 달라고 할 때, 수동문으로 명령법을 잘 써요. 수동문으로 명령을 쓰면 직접적인 명령으로 들리지 않고 표현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물론 일을 시키는 사람의 부드러운 톤도 중요하겠지만요.

바하사로 수다떠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열공~!



## [1] 숙제 아직 시작도 못했어.

Ando : Sani, tugasmu sudah selesai? (사니, 숙제 다 했어?)

Sani : Belum. Malah belum sempat aku kerjakan. (아직. 숙제할 틈도 없었어)

지금 숙제 (tugas)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숙제가 다 되었다 덜 되었다를 중심으로 말을 한다면, 수동문 구조로 **(Tugas itu) belum aku kerjakan. (Tugas itu) belum sempat aku kerjakan.**

(그 숙제를) 아직 못 했다. (그 숙제를) 아직 할 틈이 없었다. 이렇게 하고 주어인 ‘그 숙제’는 흔히 생략해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서로 아니까요.

나는 어제 숙제할 틈이 없었다. 주어인 내가 무엇을 했다/못했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이려면 능동문으로 **Aku belum sempat mengerjakan tugas (itu).** 라고 할 수 있어요. 위의 대화에서도 사실 이 능동문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과의 대화는 보통 위의 예시처럼 흐른답니다.

**Tugas itu**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로) + 시간 부사가 먼저 **belum sempat** + <sup>1인칭</sup>**saya** + 동사는 접두사빼고 **kerjakan.**



## [2] 이미 보냈습니다.

Sani : Pak Parman, paketnya sudah dikirim, belum?  
 (Pak Parman, 소포 보내셨어요?)  
 Parman : Sudah. (보냈어요)  
 Sani : Kapan, Pak? (언제 보내셨어요?)  
 Parman : Sudah saya kirim tadi pagi.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 (Paketnya) sudah saya kirim tadi pagi.

지금 “소포를” 보냈는지 여부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소포, 제가 아침에 보냈습니다” 이런 대답으로 흘렸지요. 그리고 “소포” 는 생략했어요. (Paket itu/ Paketnya) sudah saya kirim tadi pagi. **(그거) 아침에 제가 보냈습니다.** 우리말 해석은 능동으로 해요. 인니어는 수동문이고요. 구조가 그렇지요? **Sudah + saya + kirim + tadi pagi.**

**Sudah + saya + mengirim (x) + tadi pagi.** 동사는 접두사를 빼고 어근만 쓰고요, 접미사가 있으면 접미사도 같이 따라 붙여요. 이걸 “내” 가 들어갈 때 얘기에요. “saya” 가 들어갈 때 수동구조. 이때 Parman 아저씨가 Saya sudah mengirimnya tadi pagi. 라고도 할 수 있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문장 자체에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주제. 거기에 초점을 뒀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수동으로. “내가 무얼 했다” 는 것이 중요한 맥락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되다” 가 중요할 때요.

## [3]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Jawaban Anda kami tunggu.

이메일 마지막에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Kami akan menunggu jawaban Anda (Bapak/Ibu).** 라고 해도 상대방은 이해를 하겠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때 수동형식을 선택해요. 목적어(답장을)를 먼저 쓰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수동문 구조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너의 답장은 나에게 의해서 기다려진다인데 이걸 우리말이 아니지요. 우리말 해석은 “능동으로!” 답장(을) / (저희가) / 기다리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참석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참석해 주길 기다리겠다)라는 인니어 표현을 한번 볼까요. Kehadiran Bapak/ kami tunggu.// 직역하면, ‘선생님의 참석을/ 우리가 기다리겠다//’. 즉, 그 때 뵈겠습니다. 또는 꼭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등등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우리말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Kami akan menunggu kehadiran Bapak.해도 완전히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문장 자체는 맞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런 능동문장 보다는, “선생님의 참석”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앞으로 빼서, 수동형으로 쓰는 걸 선호해요.

“이메일 드렸습니다” 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Saya sudah mengirim email.** 저 그 이메일 보냈어요. 이 문장이 틀린 데는 없지만, 그 전 맥락에서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보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되지요? 그래서 인니어로는 (Emailnya) sudah saya kirim. 이렇게 하면 정확하고. Sudah saya kirim ya emailnya (보냈어 이메일 알겠지?) 이렇게 이메일이 뒤로 가도 돼요. 구어니까 허용해요. 이런 점은 한국어랑 비슷해요. 어순의 유연성이 있거든요. “보냈어요.이메일” 이렇게 허용되는 거니까요.

#### [4] 그건 아직 생각 안 해 봤어요.

Belum pernah saya pikirkan.

Saya belum pernah memikirkan (hal itu).

☞ (Hal itu) belum pernah saya pikirkan.

#### [5] 에어컨 좀 꺼 주세요.

- (a) Matikan AC-nya.
- (b) Tolong matikan AC-nya.
- (c) AC-nya tolong dimatikan.
- (d) Tolong dimatikan, AC-nya.
- (e) Bisa minta tolong matikan AC-nya?
- (d) Bisa dimatikan tidak ya AC-nya?



위에 박스에 있는 (a)문장에다가 호칭을 덧붙인다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a)문장만 얘기한다면 뭔가 딱딱하고 명령조로 들릴 수 있어요. (b)Tolong matikan AC-nya. Tolong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을 썼으니까 부드러운 표현이긴 해요. (c) AC-nya tolong dimatikan.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기에 호칭을 붙여서 말하면 더 부드러워져요. AC-nya tolong dimatikan, Mas. (d)는 앞뒤만 바꾼거니까(c)와 같구요. (e)와 (d)는 질문으로 했지만 사실은 더욱 공손하게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e)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나요? (d)는 인니 사람들이 평소에 잘 쓰는 {긍정+부정 화법}을 썼어요. 한층더 캐주얼한 표현이지요. 혹시... 꺼도 될까요 안 될까요 ~ (e)와 같은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이라면 항상 공손함이 몸에 많이 배어있다고 봐야 해요. 결과지로, 사실은 tolong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minta까지 붙였으니까요.

그리고 보통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뭔가를 부탁하거나 시킬 때는 tolong으로 주로 시작하지요. {Minta + 동사}로 쓰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Minta matiin AC (?) 이 표현보다는 Tolong을 써 주세요~~~ Tolong matiin Acnya. ACnya dimatiin saja, Mas. ※일상 구어생활을 할 때는 **-kan 접미사가 붙는 동사 단어**에 -kan 대신에 -in을 붙이니까, Tolong mati**in** AC-nya. AC-nya tolong dimati**in**. 이렇게 쓰고 듣고 계실 거예요. 요즘은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in을 붙여서 쓰는 언어문화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kan이 쓰이는 문장이 아닌데도 모든 동사에 -in을 붙여 말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이제 기본 원리를 익혔으니 심화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ang을 사용할 때 수동구조를 쓰는 거예요. 이걸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으면 인니어 고수로 가는 관문을 넘은 거랍니다. ^o^ 수학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쉬워요. ><

“First Love(첫사랑)” 이라는 노래를 부른 ‘우타다 히카루’ 라는 일본 가수가 있는데 이 가사를 인니어로 보니 <yang을 사용한 수동구조>를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같이 공부해 봅시다. 고고!

넌 누굴 생각해? (능동)    ☞ Siapa yang engkau pikirkan? (수동)

siapa + yang + engkau (너, 2인칭) + (접두사없이) pikirkan?  
구조대로 직역하면 ‘너에 의해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상하지요?  
자연스러운 우리말은 (능동으로) 넌 누굴 생각해?

언젠가 내가 다른 이를 만나더라도 **네가 가르쳐준 사랑**을 기억할거야.  
☞ Walaupun suatu saat nanti, ku temukan yang lain,  
selalu ku (a)kan ingat **cinta yang kau ajarkan.**

너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능동) ☞ (능동 그대로) **Kau mengajarkan cinta kepada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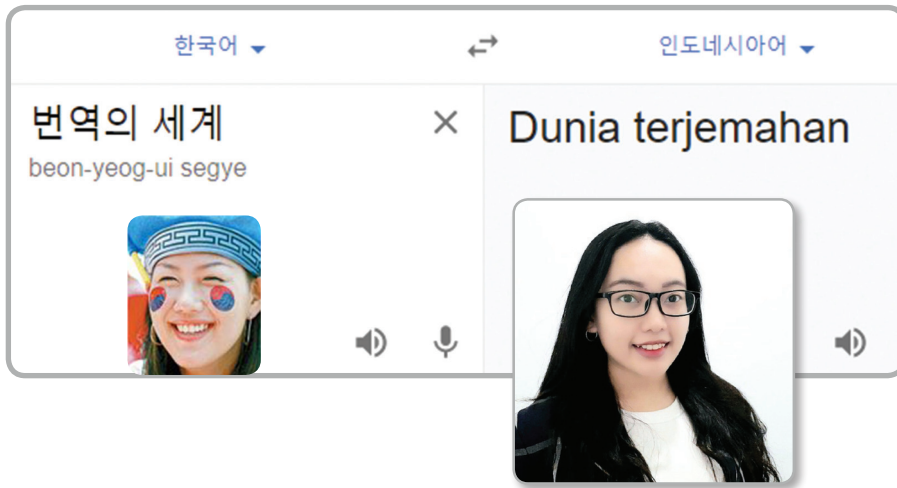
네가 가르쳐 준 사랑 (능동) ☞ (인니어구조는 수동) **cinta yang kau ajarkan**

\*mengajarkan + 무엇 : 무엇을 가르치다

cinta yang kau mengajarkan (x) 앞머리 {접두사}는 쓰지 않고, {어근+접미사}만 써요. {내가 가르쳐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1,2인칭 대명사는 같은 그룹. cinta yang **saya** ajarkan

그가 가르쳐준 사랑이면? cinta yang diajarkan dia, cinta yang diajarkannya

☞ 인니어가 궁금하면? [여기로 nusantara817@daum.net](mailto:nusantara817@daum.net)



하신타 루이사(Hyacinta Louisa)

## 번역의 세계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성함과 별명, 전공과목, 가족관계, 하셨던 일이나 현재 하시는 일 등) 안녕하세요, 저는 하신타 루이사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루이사라고 불러요. 제가 아직 프로는 아니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번역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번역가로 한인뉴스와 인터뷰까지 하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반동에 있는 Parahyangan Catholic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2016년에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일 년 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한인 단체, 그리고 공연기획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고 프리랜서로 연구보조와 통·번역 일도 했습니다. 기업 미팅, 정부 프로젝트, 전시회, 문화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통역을 하며 기업 서류, 영상물, 도서 등을 번역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다 보니 기회가 생겨 지금은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 2018년 초부터 한국어-인도네시아 번역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번역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어요. 2017년 말에 한국어능력시험 점수가 나와서 출판사에 이력서를 보내 봤어요. 번역을 하면 한국어를 계속 연습할 수 있고 수준 있는 한국어 책도 읽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해서 신청했어요. 이력서 보낸 후 출판사에서 답변이 왔어요. 정은결 작가님의 <홍천기>라는 소설 안에 들어가는 10페이지를 번역하라는 테스트였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창작한 소설이다 보니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덕분에 한자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한자어에 대해서 아예 몰랐었는데 번역 테스트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 번역 테스트를 합격해서 바로 첫 번째 책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3. 선생님께서는 2년 동안 네 편의 소설, 세 편의 에세이, 한 편의 시집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동안 이렇게 많은 책을 번역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요?

- 소설: 김비서가 왜 그럴까 1 (정경윤 저), 김비서가 왜 그럴까 2 (정경윤 저), 설렘주의보 (서한결 저), 뽀 (정미진 저)
- 에세이: 달의 조각 (하현 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저), 말의 내공 (신도현, 윤나루 저)
-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저)
- 만화책: Komik Horror Nusantara: Setan Pesugihan (그림: 이태수, 글: 배동선)
- 웹소설: 버림 받은 왕비 1권 (정유나 저)

솔직히 쉬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렸어요.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 자카르타에서 자취하는 저에게는 본업 외에 다른 수입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출판사가 제 번역본이 마음에 들었는지 번역 작업이 끝나자마자 출판사에서 새로운 제안이 계속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출판사의 신뢰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4. 보통 책 한 권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소설과 에세이, 시집, 수필집, 만화책 등 장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번역기간은 장르마다 다른데 보통 출판사에서 1개월 정도 시간을 줘요. 첫 책은 딱 1개월 만에 끝냈고, 두 번째 책은 1.5개월, 그 다음부터는 출판사의 신뢰를 얻어 번역이 조금 오래 걸려도 뭐라고 안 하네요.(웃음) 이건 나쁜 습관이지만 다른 일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밀리는 거 있죠. 보통 소설은 1~2개월, 에세이는 주제가 어렵지 않다면 1~2개월, 좀 무거운 문체의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에세이는 3~6개월 정도 걸리더군요.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번역했을 때도 약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5. 번역하셨던 책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책과 가장 쉬웠던 책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보니 번역할 때 참 쉬었던 책과 어려웠던 책이 있어요. 소설류는 평소에 많이 보고 사용하는 단어들이라 스토리를 따라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었어요. 반면에 번역하는데 애를 먹었던 책은 자기계발서와 심리학 에세이입니다. 그런 에세이 책들은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심리학 에세이를 번역할 때 언급되는 심리학 용어를 많이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독자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일 어려웠던 작업은 시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는 말장난도 많고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도 많아서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어로 된 시가 너무 아름다운데 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이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더 많은 독자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현지화하는 것이 번역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 6. 가장 애착이 가는 번역 작품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원래 수사물을 좋아해서 아무래도 정미진 작가님의 <뺨>라는 소설에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번역을 하는 내내 책에 몰입되었고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7. 저는 문학 동지인 소설가 친구가 추천해 준 인도네시아 소설가 에카 쿠르니아완의 <아름다움 그것은 상처>와 <호랑이 남자>를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남자 소설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독자에게 워트를 던지면서도 무척 아름답다. 그리고 거침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도네시아 문학과 한국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가 두 나라의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작가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만, 일단 각국의 문학 작품을 통해 그 나라의 정서와 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 8 번역하다 막히거나 침체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잘 안 된다 싶으면 노트북을 덮어버려요. 노트북 쪽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봐요. 그러면 또 새로운 단어를 알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다시 힘이 생겨요.

## 9. 처음 번역을 시작하실 때와 지금 선생님의 번역 실력이 확실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처음에 한국어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할 때는 제 글이 조금 딱딱했는데 꾸준히 번역을 하며 인도네시아어 책도 많이 읽고 편집자와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 어떻게 번역해야 독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도 신경 쓰는 프로 번역가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설 번역으로 시



작해서 이제 에세이와 시집까지 번역할 수 있게 된 제 자신이 신기하고 대견해요. 저를 믿어주신 출판사와 독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물론 제 번역물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더 많은 독자에게 양서를 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10. 번역할 작품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지요?

그동안 출판사에서 저에게 제안한 책을 모두 번역했는데 전부 수준급의 책들이었어요. 독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을 번역할 때 번역가의 마음은 한없이 뿌듯해져요.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번역한 책을 읽은 독자들이 제 SNS에 글을 남겨주시기도 해요.

‘좋은 책을 번역해줘서 고마워요.’

짧은 글이지만 독자들의 격려를 받을 때마다 가슴속에 몽클한 게 올라와요. 번역가의 길로 들어서길 참 잘했어요.

## 11. 한 작품의 번역이 끝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앓던 이가 빠졌다거나, 질질 끌던 오래된 연인과 헤어진 기분이라든지(웃음). 작업을 끝내신 후 재충전을 위해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음… 고구마 먹고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속시원해요. 그리고 책이 출판될 때는 아기 낳은 기분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아마 출산의 기쁨이 이렇지 않을까 추측해 봐요. 뿌듯하고 감동도 받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 보통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로 가요. 제가 워낙 잘 먹는 편이라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야 다음 프로젝트 시작할 때 머리가 돌아가요(웃음).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좋아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울한 생각도 잊어버리지요.

## 12. 번역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직접 여쭙보기는 그 령고, 순수 번역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인도네시아 출판사에서 번역 일만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현지 출판사가 책 번역비를 너무 적게 주는 것이죠. 서류 번역은 또 달라요. 장당 번역료가 괜찮아서 일거리만 꾸준히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프로젝트 수주를 받으려면 경력도 많이 쌓고 고객들의 신뢰도 받아야 되겠지요?

일단 경력을 쌓고 이름을 알려라, 그러면 프로젝트가 먼저 너를 찾아올 것이니!

## 13. 대표적인 재택근무 직업으로 꼽히는 번역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번역할 때 독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은 저자의 감정과 의도를 잘 파악해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번역기 돌리면 거의 다 번역할 수 있는데 기계가 보유하지 않는 인간의 장점은 감정 아닐까요? 특히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언어 공부의 끝이 없습니다. “내가 TOPIK 레벨 6 받았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가 되기 위해 출발어와 도착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 뉴스 등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14.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문화적으로 좋은 한국 책들을 인도네시아 독자들에게 많이 소개했습니다. 현재는 KOTRA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교량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고 먼 훗날에는 한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도네시아인이 되고 싶습니다.

번역가 하신타 루이사가 번역해보고 싶은 도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저)

“이 편지가 네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내가 떠났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이겠지. 어른들이 많이 화가 났을까. 그동안 나처럼 성년이 되기 전에 마을을 뛰쳐나온 사람은 없었으니까. 괜찮다면 대신 이야기를 전해줄래? 여전히 그분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야.”

“Ketika surat ini sampai padamu, mungkin berita tentang kepergianku sudah tersebar luas. Apakah para orang tua marah besar? Apalagi selama ini tidak ada orang lain yang meninggalkan desa sebelum beranjak dewasa. Bisakah kau menyampaikan hal ini pada mereka? Aku tetap mencintai mereka. Tapi, aku sama sekali tidak menyesali keputusanku.”



(인터뷰 진행:이영미편집위원)





##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코로나 19사태를 보면, 문명은 발달했지만 여전히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부터 인류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열악했던 전통시대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판타지 요소가 강하지만, 드라마 <킹덤>에서는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아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나온다. 드라마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도 다양한 위기에 맞서 나름의 지혜를 발휘했다.

### 조선을 휩쓴 대기근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전통시대에는 자연 의존도가 특히 높았다. 이런 과정에서 흉수와 가뭄이 겹치게 되면 국가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빙하기가 도래하여 가뭄과 흉수가 반복되었던 17세기에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 현종 때인 1670년(경술년)과 1671년(신해년)에 있었던 대기근은 ‘경신대기근(庚辛大飢饉)’으로 불릴 정도로 참혹했다.

가뭄이 계속되자 현종은 “내가 즉위한 이래로 천재와 사변이 달마다 생기고, 한재와 수해가 서로 잇따라 해마다 없는 적이 없으니, 밤낮으로 걱정하여 편안할 겨를이 없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재가 더욱 참혹하여 들판이 모두 타버려서 밀, 보리를 수확할 수 없게 된 데다가 파종도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하고 이어서 “가엾은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어찌서 재앙은 백성들에게 내린단 말인가”라고 하며, 승지가 교서를 기초하여 널리 직언을 구하도록 했다. 기근의 원인이 왕의 부덕의 소치임을 밝히고 대책 수립을 지시한 점이 주목된다.

1671년 2월의 기록에는 “팔도에 기아와 여역(疫)과 마마로 죽은 백성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삼남지방이 더욱 심하였다. (중략) 늙은이들의 말로는 이런 상황은 태어난 뒤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참혹한 죽음이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다고 하였다”라고 하여 당시의 자연재해와 전염병 피해가 임진왜란보다 심했다고 노인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때 굶주린 백성 2만 인에게 먹이는 죽을 서른 또는 마흔 가마 쭉어서 썼는데 닭이 울 때 시작하여 한낮에 이르러 끝나고 한낮부터 다시 쭉어서 밤이 깊어서야 파하였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붓벼서 혹 먹지 못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거둬 먹는 자도 있었다” 라는 기록에서는 피해 백성들에게 죽을 공급한 상황과 함께,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전해진다.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지역에 세금 탕감, 진흙미의 공급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현재의 재난 지원금 지급과도 유사한 모습이다. 그 외에도 왕부터 반찬 가짓수를 줄였으며, 금주령을 내려 곡식 확보에 신경을 썼다. 죄가 가벼운 죄수의 석방 등을 통해 사회 전체가 재난을 함께 극복해 가자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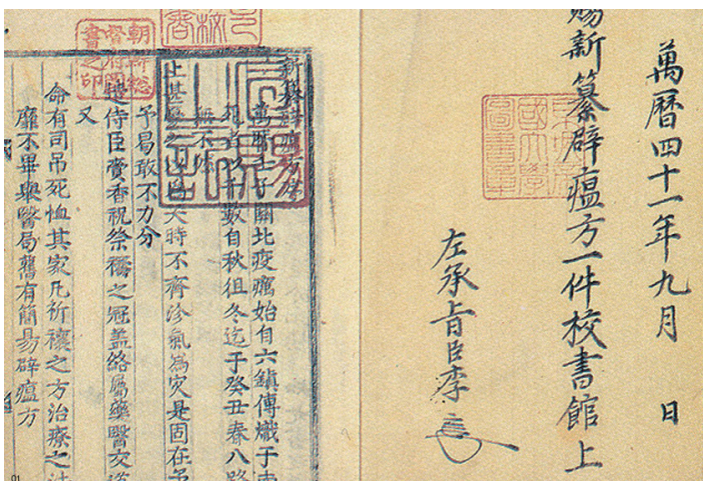
### 지진의 발생과 인식

『삼국사기』나 『고려사』와 같은 역사서에도 지진 관련 기록은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지진’이라는 용어가 1,800건 이상 검색되어, 빈도가 높았음을 보여 준다. 전통시대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정치 현상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강했다.

『태종실록』 1410년(태종 10) 3월 15일 서운관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아뢰자, 태종은 “이것은 원통한 옥사(獄事) 때문이니 혹독한 형벌을 가하지 말라” 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에 지진이 크게 일어난 시기는 16세기 초반 중종 때였다. 1518년(중종 13) 5월 18일 한양을 비롯한 전국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유시(酉時 오후 6시경)에 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처럼 커서 사람과 말이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城堞)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성 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밤새도록 노숙하며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노인들이 모두 옛날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 팔도가 다 마찬가지였다” 라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영의정 정광필

은 “지진은 전에도 있었지만은 오늘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당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01 보물 제 1087-1호 신찬벽은방. 1613년(광해군 5)에 허준이 온역의 치료를 위해 편찬한 의서이다. (문화재청)



02 서울 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18호 수표교. 물길을 건너는 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홍수의 조절을 위해 수량을 재는 역할을 했던 중요한 다리로, 조선조 500여년 동안 여러 차례의 보수를 거쳐 왔다. (서울역사편찬원)

03 진신화상첩 조선시대 고위관료의 초상을 모은 화첩. 화첩에 실린 22명 중 5명의 얼굴에서 천연 두 후유증인 곰보 자국을 발견할 수 있다. 고위 관료들도 이랬다면, 일반 백성들은 더 치료가 힘들었을 것이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조 때인 1594년 한양에 지진이 일어나자 선조는 지진의 원인을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왕세자인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지진을 과학적 기준보다 정치나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실록에 지진 기록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천문 관측 기관인 서운관(후의 관상감)에서 체계적으로 천문 현상을 관측했기 때문이었다.

실록에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함께 ‘집이 흔들렸다’, ‘담장과 성첩이 모두 무너졌다’, ‘산 위의 바위가 무너졌다’ 등 지진의 강도를 추론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남아 있다. 이러한 기록은 지진의 예측이라든가 지역별 내진(耐震) 건물의 설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전염병의 공포와 극복

『조선왕조실록』에서 역병이나 역질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총 1,400건 이상에 달한다. 실록에는 역병을 나타내는 용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역(疫)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두역(痘疫), 학질(疾), 홍역(紅疫), 악병(惡病), 염병(染病), 온역(溫疫), 콜레라 등 시기별로 다른 전염병이 유행했던 것도 기록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다. 실록에는 전염병의 참상이 시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이 보인다.





04



05


04 서울 광혜원 정측면. 광혜원은 1885년(고종 22)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다. (동아일보사)  
 05 보물 제488호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고려 광종 때 태어난 혜소국사는 말년을 칠장사에서 보냈다 하여, 많은 이의 존경을 받았다 한다. 특히 당시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해 칠장사 아랫마을 백성들은 굶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문화재청)

『숙종실록』에는 “이 해에 도성에서 쓰러져 죽은 시체가 1천 5백 82인이고, 8도에서 사망한 사람이 2만 1천 5백 46인이었다. 서울 밖의 지역에서 보고한 수는 열에 두셋도 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많은 수에 이르렀으니, 기근과 전염병의 참혹함이 실로 전고(前古)에 없던 바였다” 라고 하여, 전염병이 심각했던 시대상을 보여 준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기본적으로 환자들을 격리하였다. 한양에 역병이 발생하면 환자나 시체를 도성 밖으로 추방하는 방식이었다. 성 밖에서 역병에 걸린 환자를 전담하던 곳은 활인서(活人署)로, 이들에게는 의원과 함께 의무(醫巫)를 배치하였다. 평소 무의탁 병자를 돌보는 일을 맡다가, 역병이 유행하면 따로 여막(廬幕)을 설치하여 환자들을 보살폈다. 곳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도 동원되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의학서들의 편찬도 이어졌다. 허준은 『동의보감』 이외에도 전염병에 관한 저술인 『신찬벽운방』과 『벽역신방』을 남겼다. 숙종 때는 왕비가 두창(천연두)에 걸리자, 숙종이 경희궁에서 창경궁으로 거처를 옮긴 기록이 보이며, 과거시험 장소를 변경한 기록도 있다. 숙종 때의 어의 유상(柳)은 왕의 두창을 치료한 공으로 종2품직까지 올랐다. 정약용은 홍역과 천연두 퇴치를 위한 이론을 정리한 책인 『마과회통』을 저술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지식영이 우두법을 시행하여 천연두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1885년에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증원이 설립되면서, 전염병 극복의 역사가 이어졌다.

글. 신병주(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아들에게

속만 썩히다가  
방패연처럼 긴 끈을 달고  
어른이 되어 훌쩍 떠나간 녀석

어떤 기다림에 밤새워  
가슴 졸이던 짝사랑

어쩌나  
너의 손가락에  
작은 상처라도 생긴다면  
가시로 찌르듯 아린 통증  
평생을 안고 사는 가슴앓이

항상 조심하거라  
허둥대는 아기걸음  
눈가에 땀도는 나의 분신이어

산처럼 너를 지켜주던  
힘센 아버지의 흔적도  
어느날  
아침 안개처럼 스러지고

언젠가 혼자 남아 영영울며  
들먹일 멀쑥한 어깨

너는  
아버지 가슴에 타버린  
한줌  
사랑의 재로 남으리라

김준규 시인





김 피어나(12개월)  
활짝 피겠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나, 이쁘다고  
솔직하게

#롬복의 바다처럼 넓은 세상 #오빠 때는 말이야~  
#다음 환자 들어오시죠#이렇게 태가 나네  
#오늘도 내일도 화창하렵니다



좋아요 2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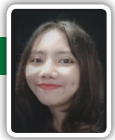


## 9월의 행복에세이



대위/제4회 적도문학상-학생 및 청소년 부문 수필 최우수상

## 언어의 온도



2019년 햇빛이 짹짹한 어느 날, 아는 한국 선생님께서 나에게 봉사지원을 알려주셨다. 그때는 반동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하는 봉사라서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통역 경험이 많지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조금 두려웠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나를 믿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결국에 용기를 냈다.

이번 봉사활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의 지원한 분들과 1주일 동안 같이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통역사 4명으로 4팀을 나눠져 있고 나는 스타킹 게임과 댄스팀에서 통역을 했었다. 봉사활동 당사가 8월쯤이라서 날씨가 너무 더웠다. 마을이라서 그런지 교실에 선풍기가 없어서 낮이 되면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날에 아이들도 점점 시끄러워지고 암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말해야 했다. 팀마다 네 개 교실을 하루에 들어가야 되어서 첫날에 엄청 힘들었다. 첫날 마지막 교실 끝난 뒤,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정신을 좀 차리려고 찬물을 마셨다. 그때는 같은 팀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등을 토닥토닥하시면서 “수고하셔요 선생님” 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힘든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로 대답하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말은 내 마음이 위로되면서 마음과 몸이 점점 편해졌다. 힘든 일이 끝난 뒤 그런 말을 들었더니 이상하게 그 힘듦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가장 따뜻한 것 같고 진심을 와 닿는 느낌을 느꼈다. 그리고 선생님의 ‘수고했다’ 라는 말이 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안 “수고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인도네시아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교수님들께 자주 들은 말인데 막상 인도네시아어로 통역이나 번역을 해야 하니까 어떤 표현으로 대답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어 자체가 단어 수가 많고 단어 착용도 디테일하기 때문이다.

보통 친구들에게나 인도네시아 교수님께 물어보면 “수고했다” 가 무엇인지 “Good work, Good job” 이라고 답하는데 그것은 인도네시아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맞는 표현을 아직

찾고 있다. 그 선생님의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나는 그냥 “인도네시아어에 그런 표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 막상 대답해보니 문득 떠오르는 질문은 “그나저나 인도네시아어에 왜 이런 따뜻한 말이 없을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었다.

그 날 계속해서 “수고했다.” 라는 말로 내 머리와 가슴은 짝 찼다. 어떤 면에서는 이 “수고했다.” 는 말을 들을 때 인정을 받는 느낌이 느끼고 내가 어떤 일이 해낼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서 해결할 때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위로해 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는 표현이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Sudah kerja keras.” 인데,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다.

한국 사람들은 “수고했어요.” 하거나 “애썼어요.” 라고도 말할 때 등이나 어깨를 가볍게 토닥 토닥한다. 그 때 느끼는 것은 ‘아, 말에 이분의 체온이 묻어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사람에 비해서 그런 차이를 느꼈다. 인도네시아 사람은 표현말이 조금 무뚝뚝한 느낌이 들고 단어가 적다. 예를 들면 통역을 끝날 때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듣는 말은 “Terimakasih(감사합니다).” 나 “Capek ya?(힘들지요?)” 그런 말이고 한국 사람들에게 듣는 말은 “수고했어요.” 또는 “애썼어요.” 이런 말이다. 받는 느낌이 조금 달랐다. 이 “수고했다.” 라는 말은 ‘감사하다’ 는 마음도 느낄 수 있고 ‘힘내라’ 등 여러 의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말이다. 하나의 말에 그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한국말이 참 좋다. 단어 하나로 듣는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 주기 때문에 “수고했다” 라고 하면 기쁜 느낌을 느낀 사람도 있고 약간 짜증난 느낌을 느낀 사람도 있다. 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표현에 따라 온도가 다르다.

나는 계속해서 “수고했다.” 와 같이 체온이 담긴 인도네시아어 표현을 찾기 위해 많이 생각도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야 한다. 나한테는 우리 인도네시아말의 표현에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크다. 따뜻한 말을 찾아 쓰면서 사람 마음을 잡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도 꽤 쉬운 일도 아니다.

수상 소감 / 데위 (Dewy)

UPI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데위(Dewy)입니다. 우선 ‘언어의 온도’ 를 통해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금까지 한국어를 공부한지 4년이 되는데 시만 쓰면 다른 분야에서 전문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들어서 수필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글을 자주 쓰지만 이렇게 공모하는데 긴 글을 한국어로 쓰는 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4년이란 기간 안에 교수님들로부터 제 글을 지도 받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한국인 팀을 위해 봉사활동을 자주 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글로 표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 깊은 기회를 주신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관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글이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까지 받을 줄 몰라서 지금까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언어의 온도’ 제목으로 쓴 이번 수필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 창출 법(안)(RUU CIPTA KERJA)

Omnibus Law (\*옵니버스 로우/합승법. 여러 종류의 법을 한 법률에 묶어 제정된 법률) 형태로 지난 2월에 국회에 상정되어 근로자의 대규모 반대 대모에도 불구하고 국회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 고용창출법(안) (RUU CIPTAKERJA)은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근간을 바꾸는 노동법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필수인 투자를 저해하고 사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되는 여러 분야의 법률의 조항을 고용창출법을 통해서 한꺼번에 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 개정이 고용창출법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노동법 중 근로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근로기준법),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사회보장법) 및 사회보장 시행기관에 관한 법률 2011년 제24호(BPJS법)을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이 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BPJS법 개정은 미미하나 근로기준법은 완전한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창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 주 단위 최저임금은 일반업종 최저임금, 노동집약업종 최저임금, 영세/소 사업체 최저임금으로 구분해서 결정해야 하며, ii).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전년도 경제성장율만큼 만 인상해야 하며, iii). 모든 업종에 기한부고용계약(계약직)을 허용하며, iv). 해고허가제를 없애고 고용계약서나 사규나 단체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근로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며, v).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없어진다(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존속).

## 1. 최저임금 제도 변경

1.1. 임금 계산 기준 : 기간 및/혹은 실적

\*법리상으로는 시급/일급/주급/월급/실적급이 가능해진다.

1.2. 4.1. 급여 계산 기준 : 기간 및/혹은 실적

1.3. 주(Propinsi) 최저임금 계산 방법

전년도 최저임금 + (전년도 최저임금 x 통

계청 발표 전년도 경제성장율) = 신년 최저임금

1.4. 주지사는 노동집약 산업의 최저임금은 별도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노동집약 산업의 최저임금계산 방식은 정부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1.5.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1.6. 주지사가 최저임금을 공포하지 않으면 전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1.7. 영세 및 소 사업자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이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영세 사업자 : 토지 및 건물 제외한 순 자산 최고 Rp.5천만, 매출 최고 : Rp.3억/년

\*소 사업자 : 토지 및 건물 제외한 순 자산 Rp.5천만 - Rp.5억, 매출 Rp.3억 - Rp.25억

1.8. 무노동 무임금 원칙 예외

1.8.1. 근로자가 사정이 있어서 결근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경우

1.8.2. 결근 혹은 무근무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8.3.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1.8.4. 법정 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 2. 기한부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PKWT) 제도 변경

2.1. 고용계약기간 혹은 특정 일 완료 기준

2.2. 고용계약기간 혹은 특정 일 완료 기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른다.

2.3. 견습 기간 불허

2.4. 고용관계 종결 이유

2.4.1. 근로자 사망

2.4.2. 고용계약기간 만료

2.4.3. 법원의 확정판결문

2.4.4.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관계 종결 사유 발생

2.4.5. 사용자 사망 혹은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로 회사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고용관계 종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 2.4.6. 위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이 회사의 새 소유자에게 있다.
- 2.4.7. 사용자가 사망 시 상속인은 근로자와 협의 후 고용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
- 2.4.8. 근로자가 사망 시에는 근로자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2.4.9. 기한부고용계약(고용계약기간 혹은 특정 일 완료 기준) 만료 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권리를 배상해야 한다(\*정부령)
- 2.4.10. 기한부고용계약 만료 이전에 고용계약을 종결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잔여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전체 급여액만큼 배상해야 한다.
- 2.4.11. 일 최장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2.4.12. 근무시간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규정한다.
- 2.4.13. 특정 일 혹은 특정 업종에 최장 일 4시간 주 18시간의 오버타임을 허용한다.
- 2.4.14. 12개월 계속 근무해야 년가권(년 12 근무일)이 발생한다.

### 3. 고용관계 종결 제도 변경

- 3.1. 고용관계 종결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근거한다.
- 3.2.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소송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직접 해결(근로자 혹은 노조) - 노동국 중재 - 노동법원 - 대법원
- 3.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 해고 가능
  - 3.3.1. 견습기간 근로자
  - 3.3.2.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계속 3차례 경고를 한 경우
  - 3.3.3. 사직
  - 3.3.4. 기한부고용계약 기간 만료
  - 3.3.5.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규정한 정년퇴직 나이
  - 3.3.6. 근로자 사망
  - 3.3.7. 불가항력적 이유 폐업 시
  - 3.3.8. 법원 판결로 사용자가 파산선고 시

- 3.4. 해고 금지
    - 3.4.1. 의사진단서에 근거 12개월 이내에서 계속 결근 이유
    - 3.4.2. 법정 국가에 대한 의무 수행으로 결근 이유
    - 3.4.3. 종교적 의무 사항을 준수로 결근 이유
    - 3.4.4. 결혼식으로 결근 이유
    - 3.4.5. 임신, 출산, 수유로 결근 이유
    - 3.4.6. 회사 내 다른 근로자와 혈연관계 혹은 혼인관계 이유
    - 3.4.7. 노조 결성, 노조 가입, 노조간부로 피임명, 근무시간 중 혹은 근무시간 외 노조활동 이유
    - 3.4.8. 형법 위배 혐의로 사용자로 고발한 근로자
    - 3.4.9. 이념, 종교, 정치, 종족, 피부색, 소속, 성, 신체조건 혹은 혼인신분 차이 이유
    - 3.4.10. 의사진단서가 있는 직무수행 결과로 인한 영구 장애 혹은 와병 시 완치시 까지
    - 3.4.11. 위에 열거한 이유 해고는 원인무효
  - 3.5. 고용관계 종결 적법 이유
    - 3.5.1. 사용자의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
    - 3.5.2. 정리 해고(\*perusahaan melakukan efisiensi)
    - 3.5.3. 2년 연속 적자로 폐업
    - 3.5.4. 불가항력적 폐업
    - 3.5.5. 법원 판결로 파산선고
    - 3.5.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준 행동을 한 경우
    - 3.5.7. 사직
    - 3.5.8. 서면 설명 없이 5일 동안 무단 결근
    - 3.5.9.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사항 위반
    - 3.5.10. 근로자가 당국에 의해 구속된 경우
    - 3.5.11. 근로자의 와병 혹은 공상으로 1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 3.5.12.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
    - 3.5.13. 근로자 사망
-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부령으로 정한다.



## 새 학기가 시작된 JIS,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수업환경 점검



김경모 (JIS 12, 학생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 8월 12일(수) 개학을 맞이한 JAKARTA INTERCULTURAL SCHOOL(이하 JIS)를 찾아 등교 및 원격 수업 등 학사운영 방침 및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의 대응 상황 및 달라진 수업환경을 점검해 보았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 첫번째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한국인 학생을 포함한 외국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방학을 본국에서 보낸 학생들은 새학기를 맞아 대부분 인도네시아로 돌아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 학교는 교문을 활짝 열지 못했다.

취재를 위해 5개월만에 방문한 학교는 적막했다. 입구에서 아이디어와 체온 체크후 교정으로 들어갔다. 등교시 학생들간 거리두기를 위해 그어진 개인간 간격 표시선, 손 씻기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수돗가와 픽업존부터 준비된 손세정제 등 달라진 교내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평소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교정은 코비드19와는 상관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먼저 고등학교 교감 바바라위머스(Babara Wiemers)선 생님께 서면으로 미리 받은 교내방역 등 선제적 학생 보호를 위한 준비상황에 대해 학교를 돌아보며 체크해 보았다. 교실과 도서관의 책상배열은 1.5m 사회적 거리에 맞추어 한방향을 향해 재배치되었다. 카페테리아 공간은 테이블 수를 반으로 줄여 간격을 띄우고 투명칸막이가 설치되었다. 카페테리아 운영은 미리 학교사이트에서 선주문을 한 후 거리를 지키며 줄을 서서 배식 받을 수 있게 바뀐다.

학교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고 각 교실에는 공기청정기와 HVAC 필터로 공기정화시스템이 작동된다. 학생들의 손이 직접 닿는 손잡이 등은 주기적인 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학교의 준비상황을 보니 안전한 캠퍼스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와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달라진 건 수업방식이다. 지난 학기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 등교가 불가해진 상황에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은 ZOOM을 통한 쌍방향 수업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녹화된 강의 또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전달된 자료로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이었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녹화된 강의를 듣는 일방향 비동기식수업(asynchronous learning)은 학생들 스스로가 시간표를 통제하지 못하면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JIS는 이번 학기부터 모든 학생이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하여 강의를 듣는 동기식수업(Synchronous learning)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실시간 수업이고 사정상 자카르타로 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밖에서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선생님과 개인 미팅도 ZOOM에서 만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침 7시 30분 출석체크를 시작으로 수업시간표대로 가정에서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진행된다. 구글클래스를 통해 사전에 학습자료가 공유되고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접속하며 즉각적으로 질의응답도 가능해졌다. 대면수업과 동일한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ZOOM자체의 에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수업은 나쁘지 않았다. 물론 가정에서의 온라인 접속문제로 열리지 않는 채팅방의 대기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기만 한 적도 있고, 와이파이를 찾아 노트북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채팅으로 즉시 질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 답변시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봐 수시로 체크하기도 했지만 마이크를 키고 끄는 것이 금방 익숙해졌다. 그래도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선생님과 학생들간에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에서 지난 학기 보다 효율성이 높아진 것임에는 틀림없다.

JIS에서 한국어를 담당하는 유한숙 교수는 “학생들의 얼굴표정이나 분위기를 통해 수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사의 에너지와 학생들의 에너지가 합쳐져서 수업이 활성화되는데 실제 공간이 아닌 모니터를 통한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학생들도 집에서 나태해지지말고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달라진 수업방식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학습시간 외적으로 진행되는 단체활동은 가능한 MUN 같은 창의적 온라인 활동으로 대체”해 주길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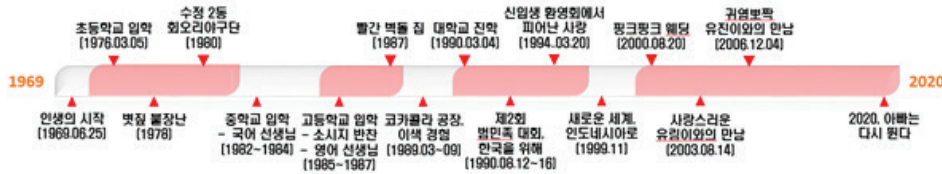
오늘도 인도네시아에는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발생하고 94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 한국도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가 2차 확산 추세라는 뉴스도 들려온다. 코로나 2차 팬데믹의 시작으로 온세계가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온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학교에 등교하여 하루빨리 친구들과 체육관에서 뛰고 싶다.



# 달달한가족바라기

성유림(G11)

## 가족바라기 아빠의 타임라인



### 아빠 때는 말이야

가난하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아빠는 점심 시간만 기다렸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도시락 반찬이 거의 똑같았어. 김치는 기본, 단무지와 감자볶음, 멸치볶음은 고급! 그 덕에 도시락 반찬 때문에 부끄러운 적은 없었어. 그런데 고등학교 생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더구나. 소시지를 도시락 반찬으로 싸오는 부유한 친구들이 있었어. 아빠 눈에는 그게 무척 부러웠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 할아버지는 막노동으로, 할머니는 날뽕팔이나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아빠를 키웠단다.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를 열심히 키우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한국에 홀로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단다. 뜨거운 땀방울이 내리쬐는 이 적도의 땅에서 아빠 가슴에만 살얼음이 낀 기분이야.

아빠는 어렸을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 비행기가 지붕 위로 날아다니는 동네에서 살 때는 고개를 들면 커다란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녔지. 마당이 넓은 집에 여러 가족이 웅기종기 모여 살았어. 아주 가파른 비탈길을 한참을 걸어올라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돌아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근사했던 집은 버스 정류장 근처의 빨간 벽돌집이야. 특이하게도 경찰서와 담벼락을 나누어 써서 아빠의 호기심을 자극했지. 아직도 그 집이 경찰서 뒤에 그대로 있을 것만 같아. 다음에 한국에 가면 아빠랑 같이 한번 찾아가볼까? 아빠의 시간 여행에 함께 해줄래?

아! 아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제일 위험한 불장난이 있는데, 한 번 들어봐.

증조할아버지 집에 갔었을 때야. 사촌 형들이랑 논에서 썰매를 타고 놀다가 손발이 너무 시려서 논 한가운데 모아둔 벼짚에 불을 붙였어. 그래, 맞아. 진짜 불장난이었어. 그렇게 손을 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휩 부는 거야. 운명의 장난처럼. 불씨는 빠르게 번져서 도저히 끌 수 없는 정도가 됐어. 우리는 겁이 나서 최대한 빨리 달렸단다. 불타는 벼짚을 뒤로 하고 도망쳤어.

벼짚은 겨울철에 꼭 필요한 땀감이었는데 어른들은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건지, 진짜로 들키지 않은 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죄책감에 다시는 그런 장난을 못하게 되었지.

### 가장의 무게

아빠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야구 붐이 불었어. 급기야 ‘수정 2동 회오리야구단’이라는 동네 야구팀이 생겼어. 거기서 아빠는 주전포수를 맡았지. 한 살 위 형이 주전투수였는데 그 투수의 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빠 말고는 아무도 없었거든. 멋있지? 아빠는 뭐든 다 잘했단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니, 기억 속에 있는 친구 녀석들이 참 많네. 그 중에서도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제일 좋아했단다. 그 아이는 시장에서 생선 장수를 하시는 홀어머니와 살았어. 아빠랑 늘 1, 2등을 다투던 선의의 경쟁자이기도 했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데로 가고 나서는 뜬문뜬문 소식을 주고받다가 지금은 연락마저 끊겼네.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소식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지금은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 같아.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단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면 남자는 더없이 강해진다.

사랑하는 우리 두 딸들과 아내를 위해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빠에게도 많은 꿈이 있었어. 사는 동안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경험이 쌓여가며 꿈도 변하는데 아빠의 마지막 꿈은 사업가였어.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또 돈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었어.

지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지. 애게, 너무 평범하다고? 그 꿈에 조금 미치지 못했을 뿐이야. 하루하루 긴장감의 연속이지만 재미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단다. 아빠와 같은 가장들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란다.

## 뜻뜻한 마음

엄마를 만나기 전에 아빠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딱 두 번 뺏겼단다.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었지. 국어 선생님은 앳되고 귀여운 분이었는데 하루는 아빠 짝지가 발표를 하는 동안 선생님이 아빠 옆에 앉았단다. 아빠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 옆에 앉았던 선생님도 들었을지도 몰라. 선생님께서 교단으로 나가기 전, 아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어. “저 친구 필기 잘하네.” 그 날부터 국어 톱을 달리게 된 것 같아. 사춘기 시절 아빠에게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도 큰 힘이 되었단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었어. 고등학교 때 까불고 놀다가 꼴찌까지 해봤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아빠한테 확 와 닿았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대학입시에서 떨어진 아빠는 코카콜라를 만드는 공장에서 잠시 일을 해봤어. 그리고 시간을 마냥 흘러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학원에 등록하고 3개월 동안 공부만 봤단다. 노력한 끝에 성적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합격했어. 그리고 대학생활을 하던 중 운명처럼 엄마를 만났지. 그 첫 만남을 평생 잊을 수 없어. 복학 후 신입생 환영회에서 맥주 한 잔에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 강의실 기둥에 기대어 앉아있는 엄마가 얼마나 예뻐는지. 그때부터 아빠 마음 속에는 엄마만 들어와 있었는데 엄마는 아빠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 엄마는 운동권 학생을 좋아하지 않았거든. 아빠는 다른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향할 때, 최루탄이 난무하는 시위현장을 누비는 날이 더 많았어. 친구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엄마 주변을 기웃거리는 남정네들을 차단해 주었단다. 췌! 엄마에게는 비밀이야!



### 딸바보가 딸에게 하고픈 말

아빠는 서른둘에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인도네시아로 건너왔어. 이렇게 20년 가까이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다니 참 신기하네. 엄마와 아빠는 2000년 8월 20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날에 결혼식을 했단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네가 찾아왔지. 엄마 배 위에 아빠가 손을 올리면 네가 발로 툭툭 차며 인사를 했어. 그게 기특하고 신기해서 아빠는 엄마 뱃속에 있는 너에 노래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주며 열 달을 보냈단다. 네가 세상에 태어나던 순간의 기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태어난 지 3일이

된 너와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아빠 혼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던 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려고 너를 안고 “유림아” 부르는데 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처음으로 눈을 떴어. 아빠 얼굴을 살피듯 머루 같은 까만 눈동자를 굴리던 네 모습.

아, 그때의 감동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사랑스런 아빠 딸,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어 고마워. 아빠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빠와 처음 눈을 맞춘 네 눈망울을 잊지 않을 거야.

### 힘든 시기를 보내는 너에게: 내 마음을 느껴 봐!

가끔 아빠가 “우리 딸 잘 크고 있어?” 하고 묻곤 하지? 유림이가 마음 씩씩이가 예쁜 사람으로 자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빠가 물어볼 때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웃는 모습을 보면 아빠의 기분도 덩달아서 좋아져. 아빠와 옆구리 킁킁 찌르며 장난할 때도, 손을 꼭 잡고 놀러 갈 때도 아빠는 유림이와 유진이가 자랑스러워. 전학 간 학교에 잘 적응해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도 마찬가지로야. 너는 언제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아빠 딸이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들아. 인생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어. 지치고 힘든 시간이 오면 힘이 되어 주는 존재는 바로 가족이란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고통보다 더 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길을 찾자 하는 자, 길을 찾아 나서라는 말이 있잖아!

힘들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 파이팅, 알지?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보렴. 나이가 들수록 ‘그때 그걸 해볼걸’ 하는 후회가 쌓여. 지금 해야 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또 해보고 싶은 일들도 있을 거야. 아빠는 너희들이 하는 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단다. 또 하나, 재미있게 하는 것과 재미를 못 느끼고 하는 것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으니 이왕이면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기! 아빠도 그러고 있어. 아빠 장하지?



### 우리 꽃길만 걷자

시간이 흘러 부모는 늙고 자식은 어른이 된다는 말, 슬프지만 이보다 아름다운 말도 없는 것 같아. 너희가 크면 노을로 물든 바닷가에 가끔씩 놀라가자꾸나. 따스한 커피 한 잔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나이를 먹어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되다면 우리 딸들 손 잡고 세계여행도 다니고 말이야. 너희들을 향해 뻗은 아빠 손을 꼭 잡아주어 고마워. 이런 사소한 것들도 아빠에게는 너무 소중한 추억이야.

그리고 통일이 되면 백두산에 꼭 같이 올라가는 거다! 우리 가족, 항상 사랑해. 행복하게 꽃길만 걷자,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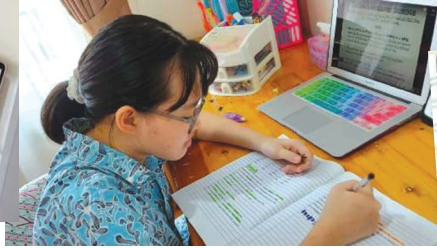




# #나만의 학습 플래너#



학생기자 SIS Semarang Gr.10 인서연



코로나(Covid - 19) 로 인해서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지난 3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 남매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지도 아래에서 열심히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와이파이가 안되면 어찌지? 프린트가 고장나면 어찌지? 시험지가 제시간에 제출이 안되면 어찌지? 와 같은 고민들로 인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생각지도 못한 고민에 직면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학습플래너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날 수업했던 부분과 숙제 그리고 다음날 공부하게 될 부분을 확인해 나가면서 일일 공부 계획 분량을 체크해 나갔다. 일일 단위로 체크를 하고, 일주일과 한달 단위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기말고사 기간에는 시험 준비를 위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면서 학습 플래너에 기입해 나갔다. 날짜별로 확인하니 학습 능률도 올라가고,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온라인 수업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혼란의 시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학습 플래너로 꼼꼼하게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슬기롭게 이겨 나가길 바란다. 공부 계획뿐만 아니라 틈틈이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유산소 운동까지 일일 계획에 넣으면 좋을 것 같다.

## #학습 플래너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1. 단기, 장기간의 학습 계획을 세우자.
- 1일 계획, 1주일 계획, 한달 계획을 구분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자.
2. 실천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과목별로 세워보자.  
실천하기 어려운 지나친 학습 계획은 절대 노!
3. 일주일간의 목표를 세울때 중요한 공부는 우선으로 둔다.  
주말에는 한주를 돌아보고, 다음 일주일 간의 계획을 미리 세워본다.
4.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날짜가 정해지면 시험에 대비하는 계획을 과목별로 체계적으로 세우자.

# 2020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입일순

번호	성명	금액(IDR)	납입연도	번호	성명	금액(IDR)	납입연도	번호	성명	금액(IDR)	납입연도
1	채만용	300,000		39	김인기	300,000		80	백인현	300,000	
2	최석일	300,000		40	길병완	300,000		81	김주형	1,000,000	
3	김주형	1,000,000		41	정용완	300,000		82	김영주	300,000	
4	김동석	300,000		42	조규철	300,000		83	석웅치	300,000	
5	최선명	300,000		43	김경곤	300,000		84	이현용	300,000	
6	민정환	300,000		44	김호권	300,000		85	이송용	300,000	
7	김종희	300,000	2019	45	이정호	300,000		86	배응식	300,000	
8	강호성	300,000	2019	46	서영률	300,000		87	권천년	300,000	
9	이국청	600,000	2020-2021	47	김희중	300,000		88	신기엽	300,000	
10	김소용	300,000		48	이완주	300,000		89	신호진	300,000	
11	박화선	300,000		49	승범수	300,000		90	구본식	300,000	
12	이원만	600,000	2020-2021	50	김재정	600,000	2020~2021	91	이광욱	300,000	
13	정민수	300,000		51	유진상	300,000		92	최지영	600,000	
14	전정우	300,000		52	김일태	300,000		93	이철훈	300,000	
15	김종확	300,000		53	양태화	300,000		94	차상현	300,000	
16	이해왕	300,000		54	오세명	300,000		95	이인권	300,000	
17	김영실	300,000		55	엄정호	300,000		96	노예범	300,000	
18	김영울	300,000		56	강형구	300,000		97	김희익	300,000	
19	조용재	300,000		57	김영욱	300,000		98	박주상	300,000	
20	김창근	300,000		58	김형근	300,000		99	임일택	300,000	
21	김대근	300,000		59	이상일	300,000		100	이진호	300,000	
22	최성현	300,000		60	최정남	300,000		101	이지완	300,000	
23	현병순	300,000		61	이명균	300,000		102	조우희	300,000	
24	김희진	300,000		62	이정휴	300,000		103	noname	300,000	
25	강선학	300,000		64	유주완	300,000		104	윤승욱	300,000	
26	김우진	300,000		65	권희정	300,000		105	김우재	300,000	
27	조호신	600,000	2019~2020	66	박성대	300,000		106	김종헌	300,000	
28	장영관	300,000		67	박재현	300,000		107	이옥찬	300,000	
29	박재한	300,000		68	하재수	300,000		108	이승민	300,000	
30	안창섭	300,000		69	김옥준	300,000		109	김병철	600,000	
31	정창섭	300,000		70	이현상	300,000		110	정사무엘	300,000	
32	손광조	300,000		71	이진수	300,000		111	최혜진	300,000	
33	김민영	300,000		72	김준규	300,000		112	김육찬	300,000	
34	유용선	300,000		73	김병국	3,000,000	마스크 지원성금	113	윤조현	300,000	
35	김윤경	300,000		74	채인숙	300,000		114	김희년	300,000	
36	양시완	600,000	2019~2020	75	최미리	300,000		115	승은호	300,000	
37	노태진	300,000		76	사공경	300,000		116	이종남	300,000	
38	김영만	300,000		77	김보연	300,000		117	손한평	300,000	
				78	정유진	300,000		118	최대현	300,000	
				79	강희중	300,000		119	noname	300,000	



## PKL : Pedagang kaki lima (노점상) Bpk Deddy (36세)

여기서 과일노점상을 5년째 하고 있어요. 휴일 없이 아침 10시 ~ 오후 7시까지 일합니다. 행인, 블루버드 기사가 주요고객인데 최근코로나 19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매출이 반이상 줄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들러 10여가지 과일을 받아 와 판매하는데 수박을 가장 많이 찾아요.

아이들은 1남 3녀에 집사람은 일을 안해 우리 전 가족이 이 사업에만 의지하고 있어요. 빨리 예전 처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 오기만 기도 합니다.

이 사업 하기 전에 이발소에서 일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 지금이 일을 시작했는데 마음만은 정말 편해서 그럭저럭 버팁니다.

딱히 다른 계획은 없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보면 우리 애들이 크겠지요. 단지 그거 하나예요. 하하하~





# 2020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0.1.1. ~ 8.28.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채만용 자문위원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	김동석 이사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1,000	
3	구종율 자문위원장	PT. JASINDO DUTA SEGARA	2,000	
4	김종희 이사	PT. YOUNG JIN INDONESIA	1,000	2019
5	강호성 부회장	PT. ANUGRAH CIPTA MOULD IND.	5,000	2019
6	김소웅 자문위원	PT. SCI	1,000	
7	김종화 이사	PT. ART MOLD INDONESIA	1,000	
8	이해왕 이사	LEE & OH CONSULTING INDONESIA	1,000	
9	김재정 이사	PT. ZEUS COMPONENT INDONESIA	1,000	
10	강선학 부회장	PT. ALPHA TOY INDONESIA	5,000	
11	김우진 고문	PT. SAMINDO ELECTRONICS	5,000	
12	박재한 회장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13	조호신 이사	PT. NEMO INDONESIA	2,000	2019 ~ 2020
14	장영관 이사	PT. SURYA MOLD TECH	1,000	
15	정창섭 이사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16	손광주 이사	PT. POSCO INTERNATIONAL IND.	1,000	
17	유용선 이사	PT. DAE HWA INDONESIA	1,000	
18	양시완 이사	PT. KISWIRE INDONESIA	2,000	2019 ~ 2020
19	김영만 자문위원	PT. BATAVIA CHEMTEK	1,000	
20	길병완 이사	PT. DAEOYOUNG DUNIA SUBUR	1,000	
21	김경곤 이사	PT. SUKWANG INDONESIA	1,000	
22	김인기 이사	PT. INDOCORE PERKASA	1,000	
23	김호권 이사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24	노태진 이사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000	
25	서영률 이사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26	이정호 이사	PT. HEONZ ROYAL JAYA	1,000	
27	정용완 부회장	PT. HUNG A INDONESIA	5,000	
28	조규철 자문위원	PT. DONG JUNG INDONESIA	1,000	
29	승범수 부회장	PT. KORIND GROUP	5,000	
30	김희중 이사	PT. JKI CONSULTING	1,000	
31	이완주 이사	PT. PERTIWI INDO MAS	1,000	
32	엄정호 자문위원	PT. ING INTERNATIONAL	1,000	
33	오세명 자문위원	PT. SUNGLIM CHEMICAL	1,000	
34	김일태 이사	PT. OROM	1,000	
35	양태화 이사	PT. BOSUNG INDONESIA	1,000	
36	유진상 이사	PT. DAE BAEK	1,000	
37	김영욱 자문위원	PT. GAYA INDAH KHARISMA	1,000	
38	강형구 이사	PT. MERITZ KORINDO INSURANCE	1,000	
39	김형근 이사	PT. GAYA INDAH KHARISMA	1,000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US\$)	비고
40	최정남 자문위원	PT. GLOBAL FIBERINDO	1,000	
41	이명균 이사	PT. HIJAU ELEKTRONIKA INDONESIA	1,000	
42	이상일 이사	PT. UNGRAN INDAH BUSANA	1,000	
43	이정휴 부회장	PT. GEE SAN INDONESIA	5,000	
44	유주완 이사	PT. FEEL BUY INDONESIA	1,000	
45	권희정 이사	PT. SAMIC INDONESIA	1,000	
46	박성대 부회장	PT. HANJIN INDONESIA	5,000	
47	하재수 부회장	PT. ROYAL PUSPITA	5,000	
48	김옥준 이사	PT. BSI MANAGEMENT (BSI GROUP)	1,000	
49	양영연 명예고문	PT. TAEWON INDONESIA	5,000	
50	이현상 자문위원	PT. ROYAL KORINDAH	1,000	
51	이진수 고문	PT. SUNGBO JAYA	5,000	
52	김준규 고문	PT. CIPTA ORION METAL	5,000	
53	강희중 자문위원	PT. SUNG TECHNOLOGY	1,000	
54	백인현 이사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55	김영주 자문위원	PT. DEWA CITRA SEJATI	1,000	
56	석웅치 자문위원	PT. DAYUP INDO	1,000	
57	배응식 자문위원	PT. KORSIA BOAN PERKASA	1,000	
58	권천년 부회장	PT. FARMSCO FEED INDONESIA	5,000	
59	신기엽 명예고문	PT. HANINDO EXPRESS UTAMA	5,000	
60	신호진 이사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61	이광옥 부회장	PT. YUNI INTERNATIONAL	5,000	
62	이철훈 이사	PT. INDO BOX UTAMA JAYA	1,000	
63	차상현 이사	ASIANA AIRLINES INC	1,000	
64	노예범 이사	PT. SAM PUTRA INTI	1,000	
65	김희익 자문위원	PT. ESP INDONESIA	1,000	
66	박주상 이사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67	임일택 이사	PT. ACE MOLD TECH	1,000	
68	이진호 자문위원	PT. JIN YOUNG	1,000	
69	이지완 이사	PT. JIN YOUNG	1,000	
70	김우재 명예고문	PT. KOIN BUMI	5,000	
71	김종현 수석부회장	PT. KOIN BUMI	10,000	
72	이옥찬 이사	PT. KORINA SEMARANG	1,000	
73	이승민 자문위원	YSM & PATNERS	1,000	
74	김병철 자문위원	PT. NINA VENUS INDONUSA	2,000	2019 ~ 2020
75	김육찬 부회장	PT. NISSI LAMANDAU JAYA	5,000	
76	윤조현 이사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1,000	
77	김희년 수석부회장	PT. AITI INVESTMENT	10,000	
78	이종남 부회장	PT. SINYOUNG ABADI	5,000	
79	최정훈 부회장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5,000	



# 인도네시아투자자문센터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투자자문. 소송. 기업법무. M&A. 인허가. 부동산. 자원. 귀화. 지식재산권

대표변호사 이승민(YI SENG MIN, SH., MH.)

MP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무료 법률 및 투자 상담. Free Legal & Invetsment Consulting  
-화요일 오후 2시-4시 Jakarta KOTRA(Tel. 021-5790-5230)  
GKBI 8th Floor, Jalan Sudirman No. 28, Jakarta Pusat  
-주일 오전 10시 15분-11시 45분 한인연합교회  
Jalan Wijaya I No. 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203  
Jalan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Tel. 021-525-5959, 527-2422.  
www.indonesialawyers.id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 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 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 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 학교 (JIS)	750	3640
북국제 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 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 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 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 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 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umchris@gmail.com

**woori**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던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분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등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쥬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끌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해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본점 722 2214  
 끌라빠가딩점 021 723 3214  
 무궁화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짚레곤점 054-987 1049  
 무궁화반동점 028-8200 1674  
 무궁화죽자점 0815 4880 0256  
 무궁화마카사르점 0811 460 67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균**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http://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골라빠가당점)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깍뚝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레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레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 종교 단체

<b>&lt;기독교&gt;</b>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아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빔)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b>&lt;불교&gt;</b>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b>&lt;이슬람&gt;</b>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 · 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컴퓨터, IT

리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쉘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셀드라아트스쿨(리뽀찌와짜)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 항공

대한항공(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글라빠가징	453 1166
사랑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DREMLAND TOUR	745 1961
KOURUS TOUR	744 72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L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ANUR)	918 1888
부가	805 1212
한일관	727 250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ISIS (NUSADUA)	770 256
ISIS (SANUR)	287 257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BALI TEGEHE AGUNG	298 643
SUN JEWELLERY	761 537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 테 리 어  
익 스테 리 어  
경 관 조 명  
간 판**

- 디자인/설계/제작/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0. 7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 0812-3793-9452 ]"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영사협력원	이 태 우	0812-3793-9452
		영사협력원	김 갑 수	0811-3945-52
2	"반둥한인회 [ 022) 200-2154 ]"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사무차장	윤 병 렬	0811-210-4622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 인회 [ 031) 568-8690 ]"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 024) 7648-2020 ]"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반뜰한인회 [ 0821-8166-6137 ]"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근	0811-419-200
13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14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정 성 화	0821-5497-9998
		수석부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배 성 운	0813-7180-6330

## [한인의 외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  
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인  
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  
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케어)과 연계  
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  
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그리움  
임이현(ACS 11)